

『譯語類解』의 편찬과 譯官 金指南*

김 하 라**

-
- | | |
|---------------------------|------------------------|
| 1. 漢語 譯官의 수험서 『譯語類解』 | 3. 역관 金慶門 및 金弘喆의 家業 계승 |
| 2. 『역어유해』의 편찬과 역관 金指南의 역할 | 4. 결론 |
-

초록: 본고에서는 기존에 愼以行, 金敬俊, 金指南 세 사람의 공저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진 『譯語類解』와 그 주변자료를 검토하여, 이 어휘집의 편찬에 譯官 김지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밝혔다. 먼저 29세의 김지남이 1682년 일본 통신사의 압물통사로 수행했을 때 쓴 『東槎日錄』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가 당대 漢語의 발음과 관련하여 치밀한 전문성을 체현하고 있었다는 점과, 외교의 실무자로서 식견과 수완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1680년대 閱鼎重이 司譯院 提調로 재임하며 偶語廳을 설치하고 외국인을 교수자로 채용하여 역관의 어학 능력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펼쳤을 때 김지남은 젊은 한어 역관으로 그러한 교육정책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두각을 나타내어 『역어유해』와 같은 사역원의 교재를 편찬할 실무자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론과 실제에서 공히 역량을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로서, 이런 그가 50대 중반의 두 선임자를 대신하여 편찬 실무를 주관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후 그의 장남 金慶門은 『通文館志』를 편찬하면서 부친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편찬의 실무를 담당했다. 김경문의 아들 金弘喆은 조부의 저술인 『역어유해』를 계승하여 보완한 『譯語類解補』를 편찬하고 跋文을 붙여 간행함으로써 『역어유해』라는 일련의 저술을 완간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뚜렷한 자각은 물론 역관 가문인 牛峰金氏로서의 자부심까지 드러냈다. 이 점에서 어휘집 『역어유해』는 중인에 대한 신분적 차별 가운데서도 김지남 三代의 가업이 성실히 이어졌음을 증언하는 하나의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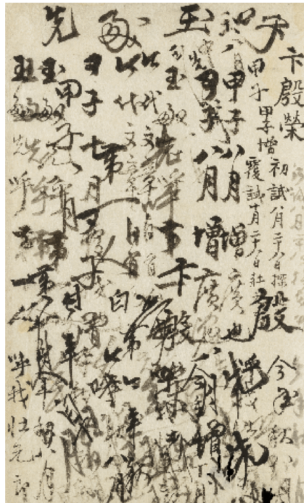
핵심어 : 『譯語類解』, 『譯語類解補』, 金指南, 金慶門, 金弘喆, 譯官

* 이 논문은 2013년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내 저명학자 및 신진학자 초청 연구 교류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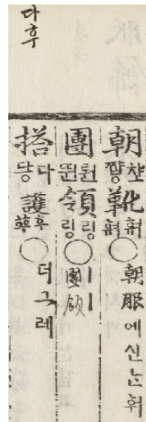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漢語 譯官의 수험서 『譯語類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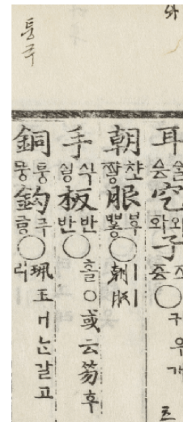
『譯語類解』는 중국과 조선 사이의 외교라는 국가정책의 문제와 관련하여, 漢語 역관의 회화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통역 업무를 담당하는 계층 내부에서 스스로 마련한 어휘집이다. 상하 2권으로 된 이 책은 역관을 뽑는 시험에서 주된 교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타의 한어 어휘집보다 널리 보급될 수 있었고, 異本도 다수 존재한다.¹⁾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5건의 『역어유해』 중 하나인 <가람古 413.1-G418y> 본에는 그 원소장자의 흔적이 남아, 이 책이 사용되던 정황을 짐작케 한다.



<도판 1> 『역어유해』 뒤표지
안쪽의 낙서



<도판 2>
“다후”



<도판 3>
“통구”

1) 송기중, 2005 「解題」, 『譯語類解·譯語類解補』, 서울대학교규장각, 1-8면; 연구동, 1995 「『역어유해』 현존본에 대한 일고찰」, 『국어학』 26, 293-316면.

이 이본의 하권 뒤표지 안쪽에는 책의 원래 주인이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낙서가 가득하다(도판 1). 우측 상단에는 “卞殷榮”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甲子墿”(1864년 증광시) 및 “初試八月二十八日 探花郎”(8월 28일의 초시에서 3등), “覆試十月二十八日 壯元郎”(10월 28일의 복시에서 장원) 등의 문구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呼我壯元郎”(나를 ‘장원랑’이라 불러라)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또한 본문 상단 여백에는 ‘搭護’와 ‘銅鉤²⁾’ 등 표제어의 한어 발음인 ‘다후’(도판 2)와 ‘통구’(도판 3) 등의 표기가 적혀 있는 것이 종종 눈에 띄는데, 이는 해당 한어의 독음을 암기하기 위해 책의 주인이 쓴 것으로 보인다.

『雜科榜目』을 참조하자면 변은영은 1844년생으로 갑자년(1864)에 漢學 전공으로 잡과에 합격한 역관이다. 다만 그는 “장원랑”이라 불리지는 못한바 총 15명의 합격자 중 12등을 하는 데 그쳤다. 이로 보건대 1864년의 시험을 앞둔 20세의 변은영은 『역어유해』를 교재로 삼아 공부하던 중 희망 내지 자기암시를 낙서에 담은 것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역어유해』에 남은 변은영의 흔적은, 고금을 두고 변함없는 수험생의 행태로서 눈길을 끈다.

변은영의 부친 卞壽獻은 한학 전공의 역관이고 생부 卞壽俊과 조부 卞宗浩는 醫科에 합격하여 활동한 醫官이다. 이들은 중인 가문으로 알려진 草溪卞氏의 구성원으로, 朴趾源의 「許生傳」에도 등장한 滑手한 갑부 역관 卞承業(1623~1709)이 변은영에게 8대조가 된다.³⁾

기실 『역어유해』는 변승업이 활동하던 시기인 1690년에 다수의 역관들에 의해 간행되었다. 그 편찬자 중 한 사람인 역관 金指南(1654~1718)은, 변승업이 首譯으로 파견된 1682년 일본 통신사행에 동행한 인연이 있기도 했다. 이처럼 17세기 말 역관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역어유해』는 역관 변승업의 8대손 변은영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사용된바, ‘역관에 의한’ ‘역관을 위한’ 실용서였다 할 수 있다.

2) 搭護와 銅鉤: ‘搭護’는 ‘옷자락까지 달린 긴 가죽 겹옷’을 ‘銅鉤’는 ‘구리갈고리’를 뜻하는 漢語로서 『역어유해』의 표제어에 해당한다. [dā hù]와 [tóng gōu]라는 현대 발음이 ‘다후’와 ‘통구’라는 『역어유해』의 독음에 대략 상응한다.

3) 한어 역관 卞承澤(1615~?)이 변은영의 직계 8대조며, 변승업은 변승택의 친동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뚜렷한 계층적 특징에 더하여 序跋文 등이 미비한 연유로, 司譯院에서 주관해 제작되었음이 확정된 외에 이 책의 편찬이 어떻게 진행됐고 그 과정에 참여한 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점이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역어유해』의 출간에 간여한 역관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중 하나인 김지남의 행적을 중심으로⁴⁾ 『역어유해』의 편찬 및 그 주변 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로써 『역어유해』의 완간 과정 및 당시 사역원의 상황을 재구하고, 아울러 성실한 역관으로 살았던 개인 김지남의 구체적 생애사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역어유해』의 편찬과 역관 金指南의 역할

1) 『역어유해』 편찬에 참여한 9인 중 한 사람

『역어유해』는 역관 愼以行과 金敬俊, 김지남 등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편찬된 시기는 1682년이고 간행된 시기는 1690년이라는 것이 정설이다.⁵⁾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서지사항에 따르면 대표저자가 김경준이다.

그런데 『역어유해』가 편찬되고 한 세기 가까이 지난 1775년, 세 공저자 중 한 사람인 김지남의 손자 金弘喆(1715~1778)은 『역어유해』의 보유편 『譯語類解補』를 엮었다. 김홍철이 자신의 편저 말미에 붙인 발문은 『역어유해보』 뿐만 아니라 『역어유해』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바가 적지 않으나 기존 연구에서 이 글이 그리 주목된 것 같지는 않다.

사물의 종류는 만 가지나 되고, 方言은 한 가지가 아니니, 華語를 익히는 우리 같은 사람들로서도 두루 알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당연히 어긋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4) 김지남에 대해서는 김양수 외, 2008 『조선후기 외교의 주인공들』, 백산자료원; 이상태, 2007 「백두산정계비 설치와 김지남의 역할」, 『역사와실학』 33 등이 참조된다.

5) 김경문 편, 2008 영인본 『通文館志』,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58면.

있게 된다. 이것이 『역어유해』를 만들게 된 이유다. 이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실제로 그 책을 엮으셨는데 그 책은 거의 수천 단어를 부문별로 나누고 종류별로 彙集하여 세세하고도 빠짐없이 기재하였고, 정밀하면서도 범위가 넓으니 참으로 화어를 익히는데 있어 莊嶽에 해당한다 하겠다.⁶⁾

위에 인용한 김홍철의 발문에는 『역어유해』가 중국말을 익혀야 하는 자기와 같은 역관층의 내부적 필요에 의해 나오게 된 것임이 먼저 밝혀져 있는데, 이는 『역어유해』와 같은 도서의 가장 중요한 편찬 의도에 해당한다. 특히 ‘華語의 莊嶽’⁷⁾은 중국어를 본토에서 배우는 것처럼 가르쳐줄 수 있는 책이라는 의미로서, 『역어유해』가 지닌 외국어 교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다.

아울러 김홍철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역어유해』의 편찬을 담당했음을 명확히 밝혔는데, 신이행 등의 공저자를 거론하지 않은 그의 이 말이 실정에 부합하는지, 이런 언급을 한 의도는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홍철의 말을 검증하려면 『역어유해』가 편찬된 경위를 면밀히 살펴야 할 터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通文館志』의 ‘什物’ 조의 내용이 출발점이 된다. 주지하듯 『통문관지』는 외교의 실무를 관장하고 역관을 양성하는 관서인 사역원의 편람서로서 김지남과 그 장남 金慶門(1673~1737)이 편찬한 것이다.⁸⁾ 그 중 사역원에 소장된 板木 및 서적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된 ‘집물’ 조에 『역어유해』의 간행을 언급한 대목이 있다.

『譯語類解』의 板木: 康熙 壬戌年(1682) ①老峯 閔 相國(=閔鼎重)이 院官 ②愼以

6) 物類有萬, 方言不一, 以我人而習華語者, 苟未能周知而徧解, 宜有所齟齬而扞格, 此『譯語類解』之所由作也. 而先大父實編成之, 其爲書, 殆數千言分門彙類, 纖悉精博, 寔華語之莊嶽也. (김홍철, 『譯語類解補跋』, 규장각 편, 2005 영인본 『譯語類解·譯語類解補』, 서울대학교규장각, 379면)

7) ‘장약’은 원래 전국시대 齊나라의 어느 거리 이름으로, 『맹자』 「등문공」의, “초나라 사람 자식에게 제나라 말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제나라 사람을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제나라 사람이 혼자 스승 노릇을 하는데 옆에서 초나라 사람 여럿이 시끄럽게 주절댄다면 아무리 매를 때리면서 가르쳐도 제나라 말을 못할 것이지만 그 사람을 제나라 거리인 장약에다 수년 동안 있게 한다면 역시 아무리 매를 때리면서 초나라 말을 하라 해도 못할 것이다”라는 대목을 출전으로 하는 말이다.

8) 安秉禧, 2000 『『通文館志』의 刊行과 그 史料 檢證』, 『규장각』 23.

行·金敬俊·金指南에게 명하여 ③漢人 文可尙·鄭先甲에게 질문하여 수정하도록 하고, 庚午年(1690)에 院官 ④鄭昌周·尹之興·趙得賢에게 명하여 財用을 내어 판목을 간행했다.⁹⁾

기존 논의에서 『역어유해』의 저자를 추정한 근거 역시 위에 제시한 내용이다. 다만 거명된 인물이 적지 않음에도 각각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미비한 편인데, 이는 『역어유해』라는 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아쉬운 점이다.

위의 정보에 따르면 『역어유해』의 편찬에 간여한 이는 모두 9인이며, 그 부류는 넷으로 나뉜다. ①간행을 지시한 고위관료 1인, ②직접 책의 내용을 修正한 사역원 관원 3인,¹⁰⁾ ③내용을 監修한 외국인 2인, ④간행비용을 출연한 사역원 관원 3인이라는 네 부류 중 좌의정 민정중을 제외한 세 부류 8인이 사대부 계급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인층의 실용서인 이 책의 성격과 관련해 주목되지만, 김지남은 그 중 한 사람일 뿐 일견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는다. 이 네 부류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앞서 김홍철의 언급을 검증하고, 나아가 『역어유해』의 편찬 경위를 밝히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먼저 閔鼎重(1628~1692)은 1682년에 좌의정으로 사역원 도제조의 직을 겸하고 있었다.¹¹⁾ 민정중은 1680년부터 이미 이 기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바, 그

- 9) 『譯語類解』板. 康熙壬戌, 老峯 閔相國令院官慎以行·金敬俊·金指南, 質問於漢人文可尙·鄭先甲修正, 至庚午令院官鄭昌周·尹之興·趙得賢, 捐財刊板(김경문 편, 위의 책, 458면).
- 10) '修正'이라는 표현을 통해 『역어유해』가 기존의 어휘집을 바탕으로 하되 오류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어유해』의 바탕이 된 어휘집으로는 崔世珍의 『訓蒙字會』 및 失傳하는 『譯語指南』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梁伍鎭, 2004 「早期 中國語辭典의 種類와 特徵에 대하여」, 『中國學報』 50; 이순미, 2013 「『譯語類解』 수록 어휘의 출처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총』 59 등 참조. 한편 『조선왕조실록』 1478년 11월 5일조에 따르면 『역어지남』에 착오가 많고 상세하지 못하니 北京에 가는 자로 하여금 質正하여 첨가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보이는데, 이는 『역어유해』를 편찬할 때 한인 정선갑 등에게 질정하여 수정하도록 한 방식과 맥이 닿는다.
- 11) 민정중은 1680년부터 1685년까지 좌의정에 재임하며 사역원 도제조를 겸했다. 『승정원일기』 1680년 9월 13일조에 그의 업무 능력을 칭송하는 金錫胄의 언급이 보이고, 같은 책 1685년 3월 27일조에 신병 때문에 사역원 제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민정중의 호소가 보인다.

가 사역원의 연소자 수십 인을 뽑아 읽기 과제를 나누어주고 漢人 정선갑과 문가 상에게 날마다 가서 배우도록 했으며 이 방침이 역관들의 漢語 실력을 배양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金錫胄(1634~1684)는 밝히고 있다.¹²⁾ 이와 같은 민정중의 업적은 외국어 會話를 연습하는 시설인 偶語廳의 창설로 수렴되며,¹³⁾ 1682년 그가 사역원 관원들에게 『역어유해』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治積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 무렵 사역원에 근무하던 20대 후반의 김지남은 한어를 배우던 연소자 수십 인에 포함되었음에 틀림없으며, 유독 그에게 『역어유해』 수정의 임무가 주어진 것은 동년배 중 김지남의 실력이 출중했음을 방증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이보다 앞선 1677년, 영의정 許積(1610~1680)과 병조판서 김석주는 조선에 들어온 漢人 정선갑과 문가상에게 軍職을 부여해 급료를 주는 한편, 역관들에게 漢語를 가르치도록 하자고 청했으며, 국왕의 윤허를 얻어 두 한인을 사역원에 근무하도록 했다.¹⁴⁾ 이 둘 중 정선갑에 대해 李瀾(1681~1763)의 언급이 상세한데, 이

12) 錫胄曰：“明朝人鄭先甲、文可尙等，仍教訓漢譯事，自國家給祿，且給衣練，以爲安接之地，卽今右議政閔鼎重，爲司譯院都提調，抄出年少者數十人，分授課讀，使兩人逐日聚會於官廳空閑處，頗有教訓之效矣。兩人所接家舍，亦自官家買給者，而第無樵汲使喚，故除其料米，買水買薪，事甚可矜，逆家奴婢各一口，兩人處割給，何如？”上曰：“分付該書，割給，可也。”(『승정원일기』 1680년 9월 13일조)

13) 1690년 10월 27일 우어청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나온 데 대해 우의정 金德遠(1634~1704)은 1682년 민정중이 우어청을 창설하여 한인을 訓上堂上으로 삼고 연소한 역관들을 뽑아 한어를 강습하도록 했으며, 곧 遞兒職으로 만들어 使行 때 한 사람씩 과견함으로써 권면 장려하는 기반으로 삼으니 通語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현저한 효과가 있었다고 하며 폐지하면 몹시 애석하리라는 견해를 표했고, 형조판서이자 사역원 제조인 柳命賢(1643~1703)은 역관을 장려하는 방도로서 우어청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했다. 이에 숙종은 1682년 당시 민정중이 우어청을 창설하여 한어를 교습한 효과가 있었던 것을 상기하며 폐지하지 말라고 했다.(金德遠所啓：“(…) 壬戌年間，閔鼎重爲都提調時，創設偶語廳，以漢人爲訓上，抄選年少譯舌輩，講習漢語，仍作遞兒，每行入送一員，以爲勸獎之地，故通語之效，比前顯勝。今若諉以別設，而遽爲還罷，則殊甚可惜。(…)” 刑曹判書柳命賢曰：“臣待罪提調，聞譯舌輩所言，則卽今勸獎之道，無過於偶語廳云矣。” 上曰：“壬戌年間，閔鼎重爲提調時，創設此廳，使漢人文可祥等，教習漢語，其時以爲有效云，而左右所達，又如此，罷之可惜，則勿罷。(…)” 『승정원일기』 1690년 10월 27일조)

는 그 지인 姜世鼎(1644~1733)이 정선갑을 직접 만나 얻은 정보를 제공한 데 따른다. 강세정의 말에 따르면 정선갑은 중국 山東 사람으로 자가 三新인데 명나라가 멸망하여 조선으로 오게 되었고 입국할 당시 19세였다고 스스로 말했다 한다.¹⁵⁾ 이익은 柳廣善(1616~1684)의 『梅墩集』에 정선갑의 시에 화운한 율시 8수가 있다는 정보도 밝혔는데,¹⁶⁾ 실제로 그 문집에 해당 시가 수록되어 있어 정선갑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매둔집』에 수록된 「次贈鄭三新」의 題下註에 따르면 유광선은 1667년 봄 평안도 安陵에서 정선갑을 처음 만났는데, 당시 그는 평안도 寧邊에 살고 있었다 한다. 이후 유광선은 대신들이 정선갑의 일을 아뢰어 국왕이 그를 서울로 불러들여 집과 급료를 하사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난 시점에 정선갑의 서울 집으로 그를 방문했다.¹⁷⁾ “一紀再逢”이라는 詩句로 보아¹⁸⁾ 유광선이 정선갑을 다시 만난 시기는 12년이 지난 1679년경으로 추정되며, 이는 민정중이 우어청을 설치하고 정선갑 등으로 하여금 역관들에게 한어를 가르치게 한 때와 대략 겹친다.

이익과 유광선의 언급을 참조하자면 1682년 당시 정선갑은 이미 노경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문가상 역시 비슷한 연배였다고 추측된다.¹⁹⁾ 추산해 보면 이 두 한인이 사역원의 역관들을 가르친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느바, 두 사람 모두

14) 『조선왕조실록』 1677년 3월 22일조.

15) “姜主簿世鼎爲余言，曾見華人鄭先甲字三新，自云山東人唐 鄭虔之後，大明之亡流竄，東出時年十九，以一律書示云。”(이익, 『성호사설』, 人事門 「鄭先甲」)

16) “『柳氏』梅墩集』，有和鄭三新八律詩，可考。”(이익, 『성호사설』, 人事門 「鄭先甲」)

17) “往在丁未春，余薄遊安陵，遇山東 鄭秀才於通判席上，秀才善吟咏，性慷慨，(…)其後大臣有以秀才事上聞者，自靈邊召至闕下，賜第于京城之中，安頓其妻子，使之居焉，且給其料廩。(…)今年余訪秀才於京城，秀才倒屣握手，喜色見眉。” 원문 중 ‘靈邊’은 ‘寧邊’의 오기로 보인다. 현재 하버드대에 소장된 필사본 3책 『梅墩集』의 원문 이미지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18) 柳廣善, 「次贈鄭三新」, 『梅墩集』 2책, “一紀再逢西塞面, 人生何處不飄蓬”

19) 정선갑은 명이 멸망할 무렵 조선에 들어왔고 당시 19세였다고 했으므로 1620년대 중반 이전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 언급된 유광선(1616년생)과 벗으로 사귀는 것으로 보건대 그와 비슷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까 한다.

1687년에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²⁰⁾

정선갑과 문가상의 질정을 받은 결과인 『역어유해』가 간행된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의 일이었다. 즉시 간행이 되지 않은 것은 역시 비용 문제 때문일 텐데, 1690년에 鄭昌周와 尹之興, 趙得賢이 간행 비용을 출연했다고 거명됐다. 1652년생인 정창주는 1675년에,²¹⁾ 1664년생인 윤지홍은 1683년에,²²⁾ 1663년생인 조득현은 1684년에 각각 역과에 합격했다.²³⁾ 이들은 모두 한학 전공의 역관들로서, 1690년 당시 20~30대의 젊은 나이였다. 사역원에서 간행한 다른 서적들도 이와 유사하게 현직의 젊은 역관들이 비용을 마련해 간행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소속된 가문을 대표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를테면 『통문관지』의 초간본이 1720년에 간행될 때에도 역관 李先芳과 卞廷老, 南德昌 등이 재용을 부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²⁴⁾ 이 중 변정로는 1719년에 한학 전공으로 역과에 합격한 30세의 신출내기 역관이었다. 다만 그의 조부가 倭學 전공의 역관인 것보다 한양을 주름잡는 갑부로 이름난 변승업인 것을 보면,²⁵⁾ 역관 중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주로 간행 비용을 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역어유해』의 내용 집필과 관련하여, 修正을 맡은 부류로 신이행과 김경준

- 20) 1687년 영의정 金壽恒(1629~1689)은 우어청을 둔 효과가 크지만 문가상과 정선갑이 연이어 사망한 후 적합한 한인을 다시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당상역관 몇 사람을 뽑아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敎誨漢語, 名之曰'偶語廳', 勤加勸課, 大有其效矣. 文可尙, 鄭善甲, 相繼身死, 今則漢人可合此任者, 有難更得, 而偶語之規, 不可因此停罷, 堂上譯官數人, 擇定訓上, 使之依前規教訓, 而鄭善甲在時, 抄擇其中成材者十人, 欲爲別樣勸獎, 臣亦親自試講, 則所抄果精矣. 『승정원일기』 1687년 3월 18일조)
- 21) 본관이 溫陽인 정창주는 李滌을 正使로 한 1681년 奏請使兼冬至使의 押物通事로 수행했다.
- 22) 본관이 坡平인 윤지홍은 偶語別遞兒를 지냈다. 윤지홍의 아내는 사역원 봉사 朴廷蓍의 딸로서 김지남의 아내와 자매간이다. 『잡과방목』에는 그의 이름이 '尹至興'으로 표기되어 있다.
- 23) 본관이 錦山인 조득현은 1711년 辛卯通信使의 압물통사로 일본에 다녀온 바 있다. 趙泰億을 正使로 한 이 통신사행에는 앞서 언급된 정창주 및 김지남의 차남 金顯門도 수행했다.
- 24) 『통문관지』 '書籍' 조 참조.
- 25) 변정로는 1691년생으로 본관이 草溪이다. 1719년에 한학 전공으로 역과에 합격했다. 부친인 卞爾昌은 한학 전공이고, 조부 변승업은 倭學 전공이다.

및 김지남이 거명되었다. 그 중 신이행은 1630년생이며 1652년 역과에 합격했다.²⁶⁾ 그의 부친 愼德麟은 사역원 僉知를 지낸 역관이다. 다음으로 김경준은 1631년생으로 1650년 역과에 합격했다.²⁷⁾ 그의 부친 金好善은 蒙學을 전공하고 사역원 僉正을 지낸 역관이다.²⁸⁾ 본고의 검토 대상인 김지남은 1654년생으로, 1672년 역과에 합격했다. 그의 부친 金汝義는 算學別提를 지냈기에 아들과 전공이 다르다.²⁹⁾ 김지남의 경우 부친이 역관이 아니라는 점도 눈에 띄지만, 그보다는 앞의 두 사람이 역과에 합격한 뒤에 태어난 까마득한 후배라는 점이 더 주목된다. 셋 중 김지남이 특히 연소하다는 것은, 김홍철의 말대로 그가 실무를 전담했을 가능성을 방증하는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선갑과 문가상이 1687년 이전에 사망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 둘에게 질문하여 『역어유해』의 내용을 수정하라는 민정중의 지시는 확실히 그 이전에 수행되었을 터이며, 사안의 중대함으로 보아 실제로 명령이 내려진 임술년(1682)에 즉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당시 세 사람의 나이를 확정할 수 있는데, 신이행이 53세, 김경준이 52세, 그리고 김지남은 29세였다. 이와 같은 연령 구성을 고려한다면 29세의 김지남이 한인 두 사람에게 본토 발음을 확인해 가며 실무를 주관했을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이며 김홍철의 주장은 준신할 만한 것이 된다.

1680년대 민정중이 사역원 제조로 재임하며 우어청을 설치하고 외국인을 교수자로 채용하여 역관의 어학 능력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펼쳤을 때 김지남은 젊은 한어 역관으로 그러한 교육정책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역어유해』와 같은 사역원의 교재를 편찬할 실무 인력으로 지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지남이 과연 어떤 처지에서 실무를 주관했을지 당시 그의 이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차례다.

26) 신이행은 본관이 居昌이고 자는 寡梅인데 한학을 전공했으며 教誨 教授 正을 지냈다.

27) 김경준은 본관이 海豊이고 자는 士傑인데, 한학을 전공했으며 教誨 正을 지냈다.

28) 신이행의 경우 『통문관지』 '서적' 조에 『前銜所先生案』을 그가 1678년에 수정했다고 한 내용이 보인다. 김경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29) 김지남은 顯宗 13년(1672) 壬子 式年試에 2등으로 합격했다.

(2) 1682년, 『東槎日錄』과 『역어유해』를 쓰다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하자면 김지남은 유능한 한어 역관으로 주로 對淸 외교 업무에 종사하며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1682년 5월 통신사의 일행으로 일본에 파견된 이력이 있으니,³⁰⁾ 앞서 首譯 변승업과 동행했다 한 것이 바로 이때의 일이다. 김지남은 18세에 한어 전공으로 역과에 합격한 지 만10년 되는 시점의 이 경험을 『東槎日錄』에 남겼다. 한 押物通事가 일본에 다녀오며 쓴 이 성실한 일기는,³¹⁾ 장래가 촉망되던 한어 역관 김지남이 『역어유해』의 편찬에 착수할 즈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자료가 된다.

『동사일록』의 冒頭에는 韓舜錫(1637~?)³²⁾의 서문과 李長榮(1602~?)³³⁾의 送詩가 함께 수록되어, 책을 소개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서문의 “歲上章敦泱月建亥下澣, 西原人韓舜錫汝聖謹序”라는 내용으로 보아 한순석은 김지남이 일본에 다녀온 지 8년이 지난 음력 경오년(1690) 10월 하순에 서문을 썼다. 그는 일정 등 관련 사항에 대해 빠뜨림 없이 기록하고 있다며 『동사일록』을 기렸으나, “때때로 볼거리로 책상 위에 갖추어 두면 아름다운 흥취가 있을 터이니 家庭에 대대로 물려줄 보물로 삼아 후세에 향기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³⁴⁾라고 글을 맺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일기가 公的으로 가치를 갖는 자료라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목하

30) 이 때 김지남은 漢學 押物通事의 자격으로 수행하였다. ‘押物’은 외국에 가는 사신을 수행하여 상대국에 선물할 물품을 맡아 관리하는 관원을 이르고, ‘通事’는 통역관을 이른다.

31) 『동사일록』은 『國譯 海行摠載』(민족문화추진회, 1974)에 수록되어 있으며,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원문과 번역문을 제공 중이다. 본고에서는 이 원문과 번역문을 참조하되 번역을 약간 수정했다.

32) 서문을 쓴 韓舜錫은 유력한 남인 정치가 許積의 庶妹夫로, 본시 서얼이었으나 허통되어 사재감 주부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1677년 과거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러 유배형에 처해졌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1689년까지 비슷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선왕조실록』 1689년 10월 16일조 참조).

33) 이장영은 본관이 金山으로, 사역원 教誨를 지낸 李愔의 아들이다. 이장영이 算學教授에 單付된 일이 『승정원일기』 1648년(인조26) 5월 13일조에 보인다.

34) “文詞之不群, 辨几牘時覽之資, 莫不興艷, 爲家庭世襲之寶, 可以流芳.”(한순석, 『동사일록』 서문)

지 않은 듯하다.

다음에 수록된 이장영의 詩는 “壬戌端午前一日”이라고 날짜 표시가 되어 있는 바, 사행 길을 출발하기 전인 壬戌年(1682) 5월 4일에 쓴 것이다.³⁵⁾

專對才華早得名, 使節의 재능으로 일찍이 이름을 얻고
 選膺珠履與俱行. 상등의 빈객으로 뽑혀 함께 길 떠나네.
 扶桑若木看將遍, 扶桑과 若木을 두루 보고
 十島三山見必明. 十島와 三山을 또렷이 보리.
 筆迹定留龍戶壁, 필적은 남쪽 바닷가 절벽에 남겼고
 詩吟應播蜃樓城. 시 읊는 소리는 바다 위 신기루에 울려 퍼지리.
 壯遊亦是男兒事, 장쾌한 유람은 역시 남아의 일
 珍重歸來慰老生. 몸 보충해 돌아오거든 老生을 위로하길.

전체적으로 평범한 내용 가운데, ‘외국에 사신으로 나가 독자적으로 응대하며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을 뜻하는 ‘專對’라는 말이 소싯적부터 외교의 실무에 능했던 김지남의 면모를 반영하고 있다. 이 시는 “銅浦戚老”가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바로 李芬의 부친 長榮이다. 算員 出身으로 관직이 소촌 찰방에 이르렀다”(即李芬之父長榮, 以算員出身官至召村察訪)는 세주가 붙어 있는바, 동작나루 근처에 거주하는 81세의 인척 어른 李長榮이 김지남의 사행을 앞두고 전별시를 써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장영이 속한 金山李氏家와 김지남이 속한 牛峰金氏家는 공히 대표적인 역관 가문인 데다 서로 곁혼이 많아 인척관계로 이어져 있었다.³⁶⁾ 이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1778년, 이장영의 5대손인 역관 李湛(1721~1797, ‘李洙’로 개명)은 김지남과 그의 장남 김경문이 엮어 初刊한 『통문관지』의 重刊本 서문을 쓰게 된다.

『동사일록』은 이장영의 전별시가 씌어진 다음날인 5월 5일의 기록에서 시작되

35) 『국역 해행총재』에서는 이 시를 사행 다녀온 후의 시점에 쓴 것으로 보아 과거시제로 번역했으나 인용문에서는 시제를 감안하여 번역을 수정했다.

36) 장인진, 2016 「조선후기 譯官族譜의 考察-『金山李氏世譜』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4, 140-141면.

며, 노정과 관련된 본격적인 내용은 5월 8일자부터 상세히 언급되었다. 특히 출발 하던 날인 5월 8일의 일기에는 김지남의 가족사항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흥미롭다.

1682년 5월 8일의 날씨는 맑았다. 모든 통신사 일행이 대궐에 가 辭朝의 예를 행한 뒤 三使³⁷⁾는 곧장 부절을 받들고 교외로 떠났고, 員役들은 각자 행장을 꾸리기 위해 귀가했다.³⁸⁾ 김지남 역시 짐을 꾸리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으나, 가족을 떠나게 된 것을 괴로워한다.³⁹⁾ 전별하러 찾아와 준 친구들에 대해서도 “고맙긴 하지만 이별을 앞두고 가족들과 보내기에도 촌음이 아까워, 드니들며 그들을 응대하는 것이 극히 싫고 괴로운 것 같다”고 했다.⁴⁰⁾ 가정적인 가부장의 면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지남의 이런 다감한 면모는 다음에 잘 그려져 있다.

날이 저녁을 향하자 郵人이 갈 길을 재촉하여, 사당에 들어가 절을 하고 곧 어머니께 하직을 아뢰었다. 그저 눈물을 머금으시고 차마 말씀을 못 하시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메어 슬픔을 가눌 수 없었다. 돌아보고 예들은 뭐 하나고 물으니, 경아는 이미 강가로 나갔다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숨어서 슬피 흐느끼느라 불러도 나와 보지 않았다. 아마도 헤어짐을 슬피해서 그런 걸 테지. 어머니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자 눈물을 삼키고 하직을 아뢰고 문밖으로 재빨리 나오려니 현아와 순아 두 아이가 옷을 당기며 슬프게 엉엉 울고 아내도 얼굴을 가리고 흐느낀다.⁴¹⁾

37) 三使: 정사 尹趾完(1635~1718), 부사 李彥綱(1648~1716) 및 종사관 朴慶後(1644~1706)를 가리킨다. “正使戶曹參議尹趾完號東山, 副使司僕寺正李彥綱號鷺湖, 從事官前校理朴慶後號竹菴”(김지남, 『동사일록』 ‘三使臣’ 항목 참조).

38) 임술 통신사행에 참여한 인원의 명단에 대해서는 김지남의 『동사일록』 ‘元額總數四百七十三人’ 항목 참조. 이에 따르면 “漢學 前正 金指南”은 세 척의 배 중 제1선에 탑승했다. 김지남의 6촌동생인 金圖南(1659~?)도 加定 司猛으로 동승했다.

39) 晴. 使臣以下, 詣闕辭朝之後, 使臣仍爲奉節出郊, 而員役各自散歸.(김지남, 『동사일록』 5월 8일조).

40) 余亦還家, 收拾行裝, 將欲作別, 慈闈難辭之色, 及兒輩難離之情, 有不可勝言. 而親舊中多有來叩之人, 感則感矣, 離庭之懷, 愛惜寸陰, 出入酬酢之舉, 極似厭苦矣.(김지남, 『동사일록』 5월 8일조).

41) 日又向晚, 郵人促程, 入拜祠宇, 仍向慈闈告別, 則只含心淚, 不忍作言, 余亦不覺其淚流哽塞, 悲不自抑, 而顧問兒輩, 則慶兒已出江頭, 諸兒避隱悲泣, 招不來見, 蓋傷其分離之故也. 欲慰

눈물을 머금고 말을 잊지 못하는 어머니는 內醫 李夢龍의 딸이며,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는 아내는 사역원 奉事 朴廷蓍의 딸이다. ‘경아’와 ‘현아’, ‘순아’는 김지남의 세 아들 김경문, 金顯門(1675~1738), 金舜門(1681~1713)을 가리킨다. 10세의 장남 김경문은 아버지를 배웅하기 위해 미리부터 한강 나루터에 나가 있었고, 김현문(8세)과 김순문(2세)은 문을 나서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고 울면서 매달렸다. 이후 이 아이들은 역관이 되어 아버지를 계승할 것이었다. 김경문은 漢學 전공의 유능한 역관이었고, 김현문은 倭學을 전공하고 1711년 일본 통신사의 수행원이 되어 아버지처럼 사행 일기를 썼으며,⁴²⁾ 김순문은 蒙學 전공의 역관이 되었다. 이 당시 태어나지 않은 金裕門(1686~?)과 金纘門(1691~1714)까지 김지남의 아들들은 대부분 역과에 급제하여 역관으로 활동했다.⁴³⁾

이번 사행에서 上通事의 직함을 띠고 제3선에 탑승하게 될 劉以寬(1636~?)⁴⁴⁾이 찾아와, 가족을 차마 못 떠나는 김지남을 재촉했다. 말을 타고 교외로 나서니 三使는 이미 강을 건너갔다고 하여 더욱 서들렀다.⁴⁵⁾

도중에 남산 內夫隘(내부엿) 고개에 이르니 ‘教誨 여러 분’이 말을 세우고 작별의 말을 하고자 했다.⁴⁶⁾ 김지남의 사역원 동료 중 教誨譯官으로 승진한 사람들이

慈闈之心, 含淚告別, 而徑出門外, 顯舜兩兒, 牽衣悲號, 布荊掩泣.(김지남, 『동사일록』 5월 8일조).

- 42) 金顯門, 2007 『東槎錄』(백옥경 역), 혜안: 백옥경, 2007 「譯官 金顯門의 日本認識: 1711년 사행록 『동사록』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9.
- 43) 김지남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김양수, 2007 「조선후기 우봉김씨의 성립과 발전」, 『역사와 실학』 33, 21-31면 참조.
- 44) 김지남의 『동사일록』 ‘元額總數四百七十三人’ 항목 참조.
- 45) 劉正子饒甫, 又爲促程. 日已晚矣, 拂衣馬上, 出往郊外. 送行之諸宰, 皆已罷歸, 三使亦已渡江, 故促鞭疾驅.(김지남, 『동사일록』 5월 8일조). ‘子饒’는 유이관의 자다.
- 46) 行到內夫隘, 遇教誨僉員, 請駐言別.(김지남, 『동사일록』 5월 8일조). 이 구절과 다음 구절의 원문에 나오는 ‘內夫隘’과 ‘外夫隘’은 버티고개의 안쪽과 바깥쪽을 각각 가리키는 지명이다. 전자를 ‘大雪馬’, ‘內夫兒峴’, 후자를 ‘小雪馬’, ‘外夫兒峴’이라고도 했다. 버티고개는 서울 중구 신당동 끝과 약수동에서 용산구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와 한남동에서 중구 장충단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통틀어서 일컫는 지명이다. 한편 김지남의 아들 김현문의 『동사록』에서도 출발하는 날인 1711년 5월 15일에 내부엿과 외부엿을 경유한 것으로 나온

다. ‘教誨’란 사역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관으로, 이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중인들에게 주어지는 遞兒職이 아닌 實職이 주어지며 일정기간 후 문반으로 승직할 수 있는 특전이 있었다.⁴⁷⁾ 김지남과 같은 해에 역과에 급제한 李涵, 金處剛, 趙讚明 등은 이미 교회직으로 승진해 있었으나 김지남은 체아직에 머물러 있었던바,⁴⁸⁾ 이는 그가 아직 역관으로 우대를 받는 안정적 지위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당시 『역어유해』의 내용을 수정하는 실무를 맡는 등 어학 능력을 인정받은 것과는 별도로 그의 승진은 다른 동료들보다 늦은 편이었는데, ‘내부엇’에서 기다리던 ‘교회 여러 분’과의 만남은 그의 이런 처지를 환기하는 면이 있다.

‘교회 여러 분’과 헤어져 外夫館(외부엇) 고개에 이르니 이번에는 대여섯 명의 친구들이 송별 행사를 하고자 하여 해가 저물었다고 사양했지만 여의치 않아 크게 취한 뒤에야 헤어졌다.⁴⁹⁾ 간신히 한강 나루터에 도착했더니 백씨 金振南(1618~?)⁵⁰⁾이 앞서 나간 장남 김경문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고, 그 외에도 배웅하려는 일가친척들이 많았다. 김지남은 그 중 유독 만조카가 없다는 데 대해 허전함을 표했다. 그는 바로 김진남의 장남 金起門인데 당시 吳始壽(1632~1680)의 獄事에 연루되어

다: “疾馳到內夫於叱峴, 則金僚而澤韓僚君度設盤果, 而本廳諸益皆會請留, (….) 暢飲數盃, 與諸益作別, 到外夫於叱峴, 則西洞堂叔及諸弟, 出待已久, 親舊之來別者, 亦多.” 김현문 역시 아버지가 그랬듯 내부엇과 외부엇에서 가족과 친지들의 환송을 받았던 것이다. 李德懋의 『雅亭遺稿』 권8의 「尹曾若 可基」에서 남산의 명승지로 淸鶴洞, 小壺泉, 又溪 등과 더불어 내부엇과 외부엇을 함께 일컫는 지명인 ‘大小雪馬峯’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이곳은 야외의 경치가 좋은 곳으로, 회합을 갖기에 적당한 장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역 해행총재』에서는 ‘外夫館’을 ‘외국어 학교’로 보았으나 따르지 않는다.

- 47) 따라서 어떤 역관이 교회직으로 승진했다면 그것은 그가 사역원에서 정규직(=久任)으로 우대를 받았음을 나타낸다. 교회역관에 대해서는 김양수, 2003 「조선후기의 교회역관: 『교회청선생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4 참조.
- 48) 김양수, 위의 논문의 부록인 ‘조선후기의 각 세기별 교회역관표’에 『교회청선생안』에 실린 역관의 명단과 해당 역관이 역과에 합격한 연도 및 교회로 승진한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 근거로 삼았다.
- 49) 又到外夫館, 五六諸益, 亦請送行, 辭以日斜, 勢不獲已, 大醉分手.(김지남, 『동사일록』 5월 8일조).
- 50) 김진남은 籌學 전공의 計士로서 역관이 아니었지만 그의 아들 金起門(1636~?)은 한학 전공의 역관이었다.

圜圉의 처지에 있었기에 송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었다.⁵¹⁾ 유이관의 친척들까지 다들 배에 올라 작별을 나누고 백씨와 김경문은 내렸으나 나머지 친척들은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간 뒤에 헤어지기로 했다.⁵²⁾ 자신의 일본행을 걱정하며 많은 이들이 배웅에 나선 데 대해 “이번 사행이 燕行과 다르다는 점을 여기서 알 수 있다.”⁵³⁾고 한 김지남의 말에서, 일본 통신사 여정을 北京 다녀오는 일보다 위험하게 여겼던 당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가족 친지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난 김지남은 무사히 使行을 다녀왔다. 김지남은 11월 15일 申時에 서울 집에 돌아왔고,⁵⁴⁾ 11월 16일에 대궐에서 復命하는 절차를 행했으며, 11월 19일에 삼사 및 여타 수행 인원과 더불어 노고를 치하하는 賞給을 받았다. 이날 김지남에게는 准職이 제수됐다.⁵⁵⁾

51) 吳始壽가 1675년 원접사로 파견되었을 때 그의 差備譯官이었던 朴廷燾(1632~1689)은 오시수가 ‘조선 양반은 不善하다’라 한 것을 오역하여 ‘조선은 신하가 강성하다’라고 중국사신에게 전했는데, 이것이 조선 국왕의 위신을 실추시켰다 하여 두 사람은 1680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엄한 국문을 받았다. 그런데 이 역관 박정신이 김지남의 장인 朴廷耆의 친형으로 김기문과 인척간임이 주목된다. 『조선왕조실록』 1680년 9월 25일조의 “그 때 오시수의 情狀이 다 폭로되자, 증거로 끌어들이는 것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오시수가 증인으로 끌어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아 와서 獄事가 蔓延하게 되니”라는 내용과 관련자인 박정신의 말을 젊은 역관 중 김기문과 卞爾輔가 들었다고 한 내용 등이 참조된다. 한편 조카 김기문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내용이 『동사일록』 1682년 6월 5일자에 보이지만(初五日辛巳, 夜雨晝晴, 留釜山, 得聞起姪蒙放之奇, 不勝喜悅祝手之至) 이는 일시적인 석방이었던 듯하며 이후 1689년에 박정신이 처형될 때 김기문은 유배형에 처해지게 된다(『조선왕조실록』 1689년 6월 24일조).

52) 而行到漢江渡頭, 嚴兄持一壺笋果及醞醑湯而來待之, (….) 慶兒在於嚴兄之側, 大小親戚之來送者亦多, 將登一船欲別未能之際, 子饒一家, 又爲來到, 兩家親黨, 一時齊登, 拜辭嚴兄, 留別慶兒於船頭, 彼此分離之情, 感動傍瞻, 而亦甚缺然者, 未有伯姪之握別也, 嚴兄與慶兒, 還爲下船, 其餘親戚, 同舡下江而後乃別.(김지남, 『동사일록』 5월 8일조)

53) 此行之異於燕行, 於此可知.(김지남, 『동사일록』 5월 8일조)

54) 十五日庚申 晴, 未明與鄭子昂, 李耳老, 李錫予, 告於使相前, 而先爲入來, 日寒孔劇, 面皮凍殺, 到板橋朝飯, 直渡漢江, 申時量到本家.(김지남, 『동사일록』 11월 15일조)

55) 押物通事金指南, 吳允文, 李碩麟, 金圖南, 並准職除授.(김지남, 『동사일록』 11월 19일조) ‘준직’은 품계에 상당하는 관직이란 뜻인데, 김지남의 경우 자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녹봉만 올려 받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1682년 5월 5일자로 시작된 『동사일록』은 같은 해 11월 19일로 마무리 된다. 그 사이의 기록에는 당시 일본의 정황이 실무자의 시선에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외국어 전문가 특유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생생히 드러나 『역어유해』의 편찬을 담당하던 그의 상황과 맞물리며 유독 주목된다.⁵⁶⁾

예컨대 김지남은 자신의 전공이 漢語임에도, 현지에서 접한 사물명이나 인명의 일본식 한자 표기와 발음에 관심을 보여 종종 기록하곤 했다.

- ① 堂上이 탄 ‘乘物’方言으로 ‘老里毛老’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屋橋와 비슷하지만 杠 하나를 위에 이어 놓고 두 사람이 앞뒤에서 어깨로 메니 이른바 懸橋다.⁵⁷⁾
- ② 술잔을 받들고 찬선을 올리는 이들은 대개 나이가 어리고 외모가 아름다우며 영리한 자들로, 이를 하여 ‘若衆訪臥可氏’이라 하는데, 다들 ‘長袴’方言으로 ‘和可麻’라 한단을 착용했다.⁵⁸⁾
- ③ ‘杉重’方言으로 ‘承其主右’라 한다. 삼나무로 만든 삼층의 상자로 떡과 과일, 饌膳을 담는다.⁵⁹⁾

①에서는 ‘乘物’로 표기되는 일본어 단어에 대해 [노리모노]라고 음가를 적은 후, 그것이 어떤 물건인지에 대한 설명을 붙였다. 현대 일본어의 ‘乘物’은 ‘のりもの’(노리모노)로 읽히며, 일반적인 탈것 외에 ‘가마, 교자’ 등의 뜻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김지남이 이 일본어 단어의 음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단어에 관해 정보를 제시한 형식은, 김지남이 편찬하게 될 『역어유해』에서 한어 표제어를 제시한 후 그에 상응하는 고유어 단어 등을 작은 글씨의 한글

56) 『동사일록』을 다룬 선행연구로는 다음이 참조된다. 백옥경, 2006 『譯官 김지남의 일본 체험과 일본 인식: 『동사일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0: 나락연(Lok Yin Law), 2016 『동아시아문화교류관점에서 조선역관의 역할: 역관 김지남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양학』 62. 선행연구에서는 김지남이 역관으로서 보여준 직업적 전문성, 특히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은 듯하다.

57) 堂上所乘‘乘物’方言‘老里毛老’,有似乎我國屋橋,而一杠綴於上,兩人前後肩之,所謂懸橋也.(김지남, 『동사일록』 6월 24일조)

58) 奉盃進饌者,皆年少貌美伶俐之人,其名曰‘若衆訪臥可氏’,皆着‘長袴’方言和可麻”(김지남, 『동사일록』 6월 29일조)

59) ‘杉重’方言承其主右,以杉木作三層檣,盛以餅果餽饌.(김지남, 『동사일록』 7월 5일조)

로 적은 것과 비슷하여 주목된다.

②에서는 ‘若衆訪’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와가씨]라는 음을 가지며 용모가 아름답고 영리한 젊은 남성을 가리킨다고 김지남이 파악한 이 단어는 아마도 일본어 ‘若衆’(わかしゅ)인 듯하다. ‘유곽 등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 혹은 江戸 시대 때 ‘관례를 치르기 전 앞머리를 기른 남자’를 통칭한 이 단어의 철자를 잘못 알았지만, 그것이 사용된 맥락이라든가 ‘와카슈’라는 음은 비교적 잘 파악한 듯하다. 그는 이 남성들이 입은 긴 바지를 [화가마]라 부른다는 점도 포착했는데, 일본어 ‘はかま’(하카마)는 ‘상의의 옷자락을 집어넣어 입는 허리에서 다리까지 덮는 의복’을 의미하는바 김지남이 이해한 바에 상응한다.

③에서는 일본인들이 조선 통신사 일행을 접대하기 위해 사용한 ‘杉重’이라는 단어에 상세한 주석을 붙였다. [승기주우]라 하여 일본어 발음을 표기한 후 그 정의와 용도를 간명하게 적었다. ‘杉重’은 현대 일본어 사전에 ‘すぎじゅう’(스기주우)라 하여 ‘얇은 삼나무 널로 만든 찬합’이라는 의미로 등재되어 있다. 이 단어는 『해행총재』에 수록된 여러 사행록에 자주 보이지만, 그 음과 정의를 함께 밝힌 예는 김지남의 『동사일록』이 유일하다.⁶⁰⁾

이처럼 김지남은 자신이 접한 일본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을 뿐 아니라, 그 발음도 상당히 근사하게 표기했다. 일본어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통신사의 三使 등 한문을 사용하는 사대부 고관이 남긴 사행기록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일 뿐만이 아니다. 김지남의 차남 김현문은 倭學 전공자인 역관으로 1711년 통신사행에 압물통사로 수행하여 『東槎錄』을 썼지만 이 기록에서는 일본어와 관

60) 『해행총재』 중에서 ‘杉重’이 등장한 예는 다음이 더 있다. 김지남과 함께 1682년 통신사행에 수행했던 洪禹載의 『東槎錄』에서 壬戌 六月 二十四日條 외 3회, 任守幹(1665~1721)의 『東槎日記』(1711) 日記補 十五日條 등에서 3회, 申維翰(1681~1752)의 『海游錄』(1719) 九月 初九日條 등 2회, 曹命采(1700~1764)의 『奉使日本時間見錄』(1747) 戊辰 二月 十七日條 등 32회, 趙巖(1719~1777)의 『海槎日記』(1763) 十月 初七日條 등 26회, 柳相弼(1782~?)의 『동사록』(1811) 閏三月 十五日條 등에서 7회 등이다. 이 가운데 ‘杉重’의 일본어 발음과 정의를 제시한 예는 김지남의 『동사일기』가 유일하다. 다만 유상필의 경우 ‘號以杉重者, 卽三層饌盒也’라 하여 뜻을 간단히 적어 두었으나 발음은 적지 않았다.

련한 특별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왜학 전공자인 김현문에게 일본어는 익숙한 언어였으므로 굳이 적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터이다. 이는 김지남이 한어 역관으로서 낯선 일본어에 노출된 것이 그의 직업적 전문성을 드러낼 만한 특수 상황임을 짐작케 한다.⁶¹⁾

그런데 한어 역관으로서 김지남의 전문성은 『동사일록』 중 1682년 8월 21일의 일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구현되고 있다. 김지남이 品川 本誓寺(현 東京都 소재)에 체류하다 한어를 할 줄 아는 일본인을 만나 대화를 나눈 데 대한 기록이다.

한 바퀴 돌면서 구경을 하노라니 왜인 하나가 처음부터 따라다니며 시간이 지나도록 가지 않았다. 그는 비단옷에 승려 복장을 했는데 얼굴이 매우 희고 맑았다. 뭔가 말을 하고 싶는데 못하는 눈치이기에 따져 물어보았으나 알아듣지 못할 외국어라 이해하기 어려웠다. 나는 우연히 漢語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사람은 같은데 말이 같지 않다.”(人同話不同)

그 왜인은 알아듣고 기뻐하며 한어로 말했다.

“글자는 같은데 음이 같지 않다.”(字同音不同)

나는 몹시 의아하여 다시 물었다.

“당신은 원래 중국말을 아는가?”(爾從來理會華語麼)

그는 대답했다.

“대략 조금 배웠다.”(略略學些)

몇 마디 물어봤더니, 얼추 대답을 했다.⁶²⁾

61) 김지남은 7월 22일 備前(현 岡山縣 동남부) 태수의 아우인 丹波라는 일본인과 만났을 때 ‘倭語는 내가 전혀 하지 못하므로, 通詞 왜인 判五郎을 불러 말을 전하도록 했다’(早朝備前州太守之弟丹波其名者, 爲人精妙, 動止端雅, 多率趨從, 觀光次來入館所, 邀余接話, 倭語則斷斷吾未也, 招其通詞倭判五郎, 使之傳語, 則問余年甲職號, 余答之, 頗有親想之色, 余怪而問之, 則乃同庚之故云)고 밝힌바, 일본어를 못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인용문 중 ‘判五郎’은 ‘判五郎倭’라고도 하는데, 17세기 후반 왜관에 거주하는 쓰시마의 왜인을 일컫는 보통명사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이 통신사행에 동행한바 그를 이 자리에 통역으로 부른 듯하다.

62) 一遭尋覓, 則一倭自初隨行, 移晷不去, 而錦衣僧裝, 貌甚白皙, 頗有欲語而不能之狀, 詰之而駭舌難解. 余偶以漢音私謂曰: “人同話不同.” 其倭聽之, 喜而漢語曰: “字同音不同.” 余甚訝之, 更問: “爾從來理會華語麼?” 對曰: “略略學些.” 試問數句, 粗能酬對. 余仍携來所館, 問其學語之由.(김지남, 『동사일록』 8월 21일조)

한어를 아는 것이 단서가 되어 이루어진 위의 짝막한 문답은, 이 두 사람이 당시 동아시아의 식자층이 처한 보편적 언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의미심장하다. “사람은 같은데 말이 같지 않다”(김지남)와 “글자는 같은데 음이 같지 않다”(일본인)는 이 말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동아시아 사람으로 생김새가 같으나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점, 같은 문자인 한자를 공유하고 있지만 읽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는 점 등에 대한 인식을 간명히 보여준다.

같은 분야를 전공한 데다 생각까지 통하는 사람을 異國에서 만났다는 반가움에 김지남은 그 일본인을 숙소로 데리고 가 어떻게 한어를 배우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일본의 유력 제후인 水戶侯⁶³⁾가 여러 나라의 언어에 유의하여, 조선과 琉球, 安南, 暹羅 등지의 말을 통역하는 사람을 고용해 숙식과 급료를 제공하고 있는바 자신도 그 휘하의 인원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어릴 적부터 唐僧인 土木子에게 한어를 배웠으나 스승이 사망한 이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어 김지남에게 가르침을 청한다고 말했다.⁶⁴⁾

김지남은 그의 대답으로부터 조선과 일본의 역관이 다른 처지에 놓여 있음을 자각하고 약간의 궁금증을 느낀다. 그는 우선 외교라는 公務에 이바지할 역관을 양성하는 사안이 어째서 한 지방 영주의 私的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표한다. 그의 입장에서 외교란 국가간의 위계를 반영한 事大交隣으로 요약되며, 자신과 같은 역관은 예로부터 국가에 소속되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⁶⁵⁾

그 즈음 조선의 사역원은 앞서 살펴보았듯 민정중 등 고관의 노력으로 재정비

63) 水戶侯: 당시 일본 水戶(현 茨城縣 水戶市)의 藩主였던 德川光圀(1628~1701)를 가리킨다. 그는 儒學을 장려하고 彰考館을 설치해 史書를 편찬하는 등, ‘水戶學’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평가된다.

64) 余仍携來所館, 問其學語之由, 曰: “大君之從祖水戶侯門下, 多有醫師畫工方術之類, 而尤留意於諸國言語, 轉譯朝鮮, 琉球, 安南, 暹羅等語之人, 並皆處以別館, 厚廩尊奉, 而俺乃西京之人也, 自幼從學於避世唐僧土木子, 稍有所悟, 故昨年赴其召, 而土木子既死, 無路進益, 水戶心常慨惜, 寤寐不置, 今逢尊公, 幸莫大焉, 願乞煩教, 俾之發蒙.”(김지남, 『동사일록』 8월 21일조)

65) 余曰: “事大交隣, 有國之不可已者, 環人之職, 寄象之官, 自古有之, 則爾國何獨不然, 而水戶之私蓄技藝之人, 抑亦何意耶?”(김지남, 『동사일록』 8월 21일조)

되어 내실을 기하고 있었고 김지남 자신도 『역어유해』의 편찬에 힘을 보태며 일익을 하던 중이었다. 또한 조선 사역원의 업무는 대체로 중국과의 외교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유구와 베트남, 태국 등의 언어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역관 양성은 그에게 이질적인 것이었다. 이런 그가 보기에 동아시아의 보편성에서 이탈해 있는 일본의 역관 양성 방식은 조선의 제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받아들여졌던 듯하다. 조선과 일본을 비교하며 그가 느꼈을 약간의 우월감에는 17세기 말 조선의 사역원에 소속된 유능한 한어 역관으로서의 자신감이러든가, 중요한 공무를 맡은 관원으로서의 책임감 등도 개입해 있다.

그 일본인은 자기 나라의 제도가 동아시아의 보편성에서 벗어나 있다는 김지남의 지적에 대해 애써 해명했다. 먼저 일본이 처한 상황이 조선과 다르다는 언급을 하는데, 즉 일본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그리 상관이 없고 예로부터 외교 관계도 없었지만, 류큐와 베트남, 태국과는 선박을 통해 무시로 왕래가 있어 하나의 권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외교의 일환으로 언어를 강습하는 일이 국가의 공적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김지남의 지적에 대해 두 가지로 해명을 하는데, 하나는 대마도 사람 중 조선어에 능숙한 이가 많기 때문에 조선어는 굳이 국가에서 법규를 정해 인원을 두고 강습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다음으로 수호후가 私적으로 역관을 양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⁶⁶⁾ 일본의 국가제도가 동아시아의 보편성에서 이탈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조금 궁색해 보이는데, 이 일본인은 자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약간의 방어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상황에서 기인한 실용적 요구가 해당 지역의 언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취지의 이 해명에는, 결국 일본이 사대교린이라는 동아시아의 공통적 외교질서에 포섭되어 있지 않다는 일본인들의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이 인

66) 曰：“弊邦與中國，不啻如風馬牛也。剖判以來，迄不相通，而琉球、暹羅、安南，則相去遠近，帆有利鈍，往來無常，有似一域，而貴國之語，則馬島之人，多能通曉，用是國無置員講習之規矣。然水戶宰以吾君至親，富貴無比，倚任且重，捐俸養士，爲國盡誠，俺之來此，亦荷三聘之眷耳。”(김지남, 『동사일록』 8월 21일조)

식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이 기존의 조공체계로부터 이탈하게 된 역사적 사실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지남은 그의 대답을 듣고, ‘일본어 역관도 貢使(중국 가는 사신)를 수행하도록 하고, (한어 전공자인 자신이 일본에 압물통사로 따라온 것처럼) 한어 역관도 일본 통신사를 따르도록 한 조선 정부의 방침이 깊은 사려와 원대한 식견에서 나온 것’이니,⁶⁷⁾ 그와 유사하게 다양한 외국어 통역을 휘하에 양성하고 있는 일본 수호후 역시 비슷한 의도를 지니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며 양국 외교정책 사이에서 일말의 공통점을 찾고자 한다. 어쨌든 일본에서 중국을 포함한 각국 언어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외교관계의 외연을 확장할 가능성을 포함하므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그는 일본에서 외교의 문제가 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끝까지 수긍하지 못했는데,⁶⁸⁾ 이는 최일선에서 외교의 실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로서의 식견이 반영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외국어가 단지 언어일 뿐 아니라 외교의 수단이므로 교육에서부터 철저히 국가의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양국 간 관계에서 균형이 맞아 절차상 어그러짐이 없으리라는 문제의식의 반영일 터이다.

한편 탁월한 언어 감각을 지닌 한어 역관으로서 김지남의 전문성은 그 일본인에게 한어를 가르쳐 줬다는 중국인 土木子에 대한 관심을 통해 발현된다. 그의 인적사항에 대한 김지남의 질문에⁶⁹⁾ 일본인은 토목자가 본디 승려의 신분은 아니었

67) 김지남의 이 말은 나중에 그의 증손 金健瑞가 편찬한 『증정교린지』 권5 「通信使行」 중의 다음 대목과 조응한다: “上通事 3員-漢學 1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는 모두 倭學教誨로 뽑아 그 임무를 맡겼으나, 숙종 8년 임술(1682)에 老峯 閔相國(=閔鼎重)이 한학을 이미 상통사로 임명하였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 하여 이로부터 漢學 1원, 倭學 2원을 定式으로 삼았다. (...) 押物官 4원 - 漢學, 舊 압물관 1원, 왜학 2원은 교회 및 聰敏 중에서 과거에 합격한 자를 보내었다. 숙종 8년 임술에 왜인이 1원을 더 요청하므로 총민 중에서 과거에 합격한 자를 더 보내어 지금은 4원이 되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행에 한학 전공의 역관을 함께 파견하도록 한 방침은 1682년 즈음 민정중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68) 貢使之行, 解倭語者隨之, 信使亦帶漢學通事, 此乃朝廷之深思遠見也. 水戶倭之培養重譯之人, 其亦有見乎此耶. 但不於公而於私, 則未知其可也.(김지남, 『동사일록』 8월 21일조)

고, 명말의 혼란한 정세를 피해 일본으로 흘러들어와 西京 黃蘗山(현 京都 宇治 소재) 萬世菴에 의탁했고 3년 전(1679) 87세로 사망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⁷⁰⁾ 토목자라는 승려는 앞서 언급한 정선갑 등과 비슷한 세대에 속하는 중국 사람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선갑은 鄒魯之鄉으로 일컬어지는 산둥 출신임이 밝혀져 있었으나 이 승려의 고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 일본인 역시 토목자의 내력을 자세히 모른다고 하였음에도,⁷¹⁾ 김지남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 이 중국인의 출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추론을 이어나갔다.

그 왜인은 매일 와서 問候하고 갖가지 질문을 했다. 그런데 輕唇音을 구사하지 못하고, 또 入聲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소리 내는 것 같이 해서, ‘穀’과 ‘骨’, ‘質’과 ‘職’ 등의 소리는 제법 또렷이 구분해 발음한다. 내가 예전에 崔世珍이 찬한 『四聲通解』를 봤는데, 그에 따르면 漢韻과 蒙古韻에는 모두 入聲을 終聲으로 쓰지 않고 오직 南方音의 呼音에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그러니 토목자가 남방 사람임에 틀림없음을 알 수 있다.⁷²⁾

김지남은 그 일본인의 발성을 분석하여 그가 ‘輕唇音’을 발음하지 못하고, ‘入聲’을 조선식으로 발음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輕唇音’은 아래 입술과 윗니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현대 중국어 발음의 ‘f’ 따위가 해당된다. 淸代의 학자인 錢大昕(1728~1804)이 밝혀낸 “古無輕唇音”이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대체로 唐宋 이후에 경순음이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건대⁷³⁾ 이 일본인이

69) 且所謂土木子, 以中國何地僧, 避何人難, 自何年從何路來居倭京乎? 今其死, 經幾歲, 而年又幾許耶?”(김지남, 『동사일록』 8월 21일조)

70) 土木子則本非出家之類, 而因明世政亂, 始以強壯之年, 來此爲僧, 寄身於西京 黃蘗山 萬世菴, 及其死也, 年已八十七, 而茶毗之後, 已歷三歲矣.(김지남, 『동사일록』 8월 21일조)

71) 其爲人, 與人寡合, 言亦慎默, 住蘗山五十年, 不一日與人戲謔, 菴僧數百, 無一人得其容接者, 俺一人獨見親愛, 而亦不詳其始終.(김지남, 『동사일록』 8월 21일조)

72) 其倭連日來候, 條事質問, 而不能爲輕唇音, 且有入聲, 如我國之呼者, 如穀與骨質與職等音, 頗有所辨, 余嘗見崔世珍所撰『四聲通解』, 漢韻蒙古韻, 皆不用入聲終聲, 而唯南音之呼, 多有用者, 可知土木子者爲南方人無疑也.(김지남, 『동사일록』 8월 21일조) 『국역 해행통제』에서는 “경순음을 내지 못하고 또 入聲이 있으면 우리나라 呼音과 같이 한다. 그러나 穀과 骨, 質과 職 등의 음은 자못 구별할 줄 안다”고 번역했으나, ‘穀’, ‘骨’, ‘質’, ‘職’이 모두 入聲에 해당되므로 위와 같이 수정했다.

경순음을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발음이 당대의 표준적 漢語와 거리가 있다는 징후로 읽힌다. 또한 그는 入聲을 당대의 한어 발음법과 다르게 읽었는데, 이를테면 ‘穀’, ‘骨’, ‘質’, ‘職’ 등 입성에 해당하는 한자를 조선식 한자음에 가깝게 읽었던 듯하다.

김지남은 16세기 초반에 편찬된 韻書 『四聲通解』를 통해, 당대의 한어나 몽고어의 한자음에서 이미 종성으로 ‘ㄱ’, ‘ㄴ’ 등의 소리가 사용되지 않는 식으로 발음법이 바뀌었으며 오직 남방 지역에서만 조선식과 유사한 발음법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었던바, 그를 바탕으로 그 일본인에게 한어를 가르쳐 준 중국인이 남방 지역 출신임을 추론한 것이다.

이처럼 29세의 김지남은 당대 한어 발음과 관련하여 나름의 전문성을 체현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전공 분야가 어학이지 문학이 아니라는 점을 뚜렷이 자각하고 있기도 했다. 같은 날 일기에서 김지남은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에게 문장을 요청하는 잘 알려진 현상을 직접 겪은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나라 문헌의 명성이 평소 일본인들의 이목에 익숙히 알려졌기에, 詩와 翰墨을 구하는 요청이 길거리에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館舍에 도착하게 되자 館伴과 그 나라 執政者로부터 잡역을 하는 하인과 儒釋 중 호사자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지필묵을 늘어놓고 날마다 와서 간절히 요청을 한다. 그러나 나는 詩는 더욱이 잘 모르거니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표현하지 못하고 반드시 洪道長과 成伯圭에게 맡겼다. 저 글씨 같은 것은 비록 서예를 배운 것은 아니지만, 좋은 종지와 精한 비단이 눈앞에 쌓이고 오는 사람들은 꾸역꾸역 몰려들어 손을 내저어도 가지 않으니, 부끄러움을 잊고 붓을 휘둘러 마침내 한 번 고역을 치렀다. 화살이 시위에 메겨지면 어쩔 수 없이 쏘아야 한다는 것이 이런 길 두고 하는 말인가 싶다.⁷⁴⁾

73) 곡효운, 2016 「輕唇化音變兩個「例外」考」, 『중국언어연구』 62: 百度百科 輕唇音 항목. <http://baike.baidu.com/item/%E8%BD%BB%E5%94%87%E9%9F%B3/1483898?fr=aladdin>

74) 我國文獻之名, 素飽日東人之耳目, 求詩求墨之請, 在路次已不可堪. 及到舍館, 自館伴與我國執政者, 以至廝養之倭及儒釋好事輩, 張紙硯墨, 日來求懇, 而余於詩尤味昧焉, 愧心之發, 無以爲辭, 必委於洪道長, 成伯圭, 若夫筆札, 則余雖無臨池之學, 好紙精練, 堆積眼前, 而來者雜選, 揮之不去, 始試忘恥揮洒, 終遂成一苦役. 矢在絃上, 不得不發云者, 豈謂此耶!

열렬히 詩文을 요청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문화적 우월감을 갖고 자신의 수준에 대해서는 그리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조선 사람의 태도에 가까울 터인데, 김지남은 자신의 능력을 가늠하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 김지남은 스스로가 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洪道長’과 ‘成伯圭’에게 부탁을 넘겼으며, 글씨를 써 달라는 요청은 비록 서예를 제대로 배운 명필이 아니라 곤란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구구하게 사정을 말했다. 이처럼 김지남이 난감해하며 근신한 데에는, 자신이 잘 하지 못하는 분야에 함부로 나설 수 없다는 정직함과 아울러 조선의 국격이 손상될까 저어하는 외교 실무자로서의 책임감도 작용했을 터이다. 그로부터 대신 시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은 ‘洪道長’과 ‘成伯圭’는 바로 中庶層의 문인으로 유명한 洪世泰(1653~1725, 道長은 그의 字)와 成琬(1639~1710, 伯圭는 그의 字)인바,⁷⁵⁾ 김지남이 경황 중에도 적절한 사람을 찾아 위탁했음을 알 수 있다.

시를 쓰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고 주저하는 김지남의 태도는, 앞서 어떤 일본인 통역의 발음을 분석하여 그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준 사람이 남방 출신일 것으로 결론짓는 명료함과 대비됨으로써, 한 어학 전문가의 형상을 뚜렷이 부각하게 된다. 요컨대 김지남은 자신의 특징이 문학이 아니라 어학이라는 점을 스스로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그의 면모가 반영된 『동사일록』에 대해 ‘책상에 두고 때때로 볼 만한 흥취 있는 읽을거리이자 가문의 보물’이라고 주로 문장의 측면에서 평가를 마무리했던 韓純석의 序文은 어떤 면에서 핵심을 놓친 측면이 없지 않다.

이상에서 김지남의 저술 『동사일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역어유해』의 편찬에 그가 어학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지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그는 외교의 실무자로서 식견과 수완을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외국

75) 홍세태(당시 30세)는 副使 李彥綱의 子弟軍官으로, 성완(당시 44세)은 製述官으로 1682년 통신사에 수행했다. 두 사람은 당시 일본인들에게 수많은 시문을 써 주어 명성을 남겼다. 홍세태는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역관 시인이고, 성완은 成大中의 종조부인데, 일본에서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와 시문으로 교유한 일이 유명하다.

어에 대해서도 이론과 실제에서 아울러 역량을 보유한 이상적인 전문직 종사자였던 것이다. 이런 그가 『역어유해』의 편찬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김지남은 자신의 초기 역관 시절이 담긴 저술 『동사일록』에 대해 어떤 의미부여를 하고 있었을까. 그는 사행에서 돌아온 1682년 11월 18일 직후의 어느 시점에 이 저술의 초고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일기 중의 “내가 맡은 바의 일이 없는 날이 없고, 三使 宰相들이 호출하는 것도 하루에 두세 번이나 되니, 관사에 머문 것이 여러 날이건만 일기를 기록할 새가 없다. 뒤미처 생각하면 아득하여 열에 한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⁷⁶⁾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동 중 바쁜 업무 때문에 날마다 쓰지는 못해도 짬이 날 때마다 성실히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기의 초고를 책으로 엮어내고자 한 시도가 1690년경에 비로소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한순석의 서문에 표시된 날짜 ‘경오년(1690) 10월 하순’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즈음 동료 역관 정창주 등이 비용을 내어 『역어유해』가 비로소 간행되었고, 김지남의 역관 경력도 거의 20년에 가까워지고 있었으나, 『역어유해』의 편찬에 일익을 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지는 못했던 듯하다. 김지남이 일본으로 떠나던 1682년 5월 8일 남산 내부엿 고개에서 그를 환송해 준 교회역관들의 존재가 아직 승직하지 못한 그의 처지를 환기하게 했거니와, 1690년 현재 37세의 그는 여전히 교회직으로 승진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는 44세가 되어서야 승진할 수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역관들이 교회직에 이르는 평균 나이가 32.5세임을 감안한다면⁷⁷⁾ 그의 승진은 꽤 늦은 것이었다.

앞으로 『역어유해』의 편찬이나 『동사일록』의 저술이 역관 김지남의 대표업적으로 남을 예정은 아니었으나, 37세의 김지남에게 29세 때 일본 통신사에 압물통사로 수행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이력 중 하나였다.⁷⁸⁾ 이런 견지에서 그는 자신의 『동

76) “句當之事, 無日無之, 而使相招要, 日或再三, 故留館多日, 無暇於記事, 追思茫茫, 十不存其一二焉”(『동사일록』 8월 21일조)

77) 김양수, 2003 앞의 논문, 86면 참조.

78) 김지남의 이름은 『승정원일기』 1693년 10월 4일조에서 비로소 찾아볼 수 있다. 김지남을

사일록』에 애착을 두어 책으로 내고자 한순석에게 서문을 요청한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현전하는 『동사일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 책의 가치에 대해 앞서 한순석의 서문보다 더 준신할 만한 언급을 하고 있는 글이 있다. 홍세태의 문집 『柳下集』에 수록된 「金季明東槎錄序」가 바로 그것인데,⁷⁹⁾ 같은 역관으로 함께 사행에 참여한 동료가 쓴 글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일본에 다녀온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김지남과 이야기를 나누다 그의 일기를 보게 됐다는 홍세태의 언급에 따르면⁸⁰⁾ 김지남은 처음 한순석의 서문을 받고 10여 년이 흐른 후 다시

冬至使行 때 추가로 파견하며 그에게 필요한 卜刷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又以司譯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今番冬至使行時, 譯官金指南, 別加定送事, 提調臣柳翕賢, 親承傳教矣. 金指南所騎驛馬, 及卜刷馬衣資盤纏等物, 依他員役例, 磨鍊以給之意, 該廳該曹, 並以分付, 何如?” 傳曰: “允.”) 한편 이에 앞선 1692년 김지남은 역관으로 북경에 수행했을 때 副使 閔兢道(1633~1698)의 지시로 화약 제조법을 배우고자 자비를 들여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여의치 못했다. 그가 1693년 동지사행에 추가로 파견된 것은 이 임무의 완수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는 중국 정부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탐문하여 화약 제조법을 완전히 숙달하고 돌아와 실험에 성공했다. 이후 南九萬의 인정과 위촉을 받아 1698년에는 자신의 성과를 『新傳煮硝方』으로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 1698년 4월 25일조(“前司譯院正金指南, 頃於入往北京時, 多費私貨, 專得其法云. 故臣於上年冬, 令指南, 監煮軍器寺硝焰, 則煮硝時, 用灰用膠, 乃是新法, 燒木, 取用一年雜草, 亦甚便易. 故功役頗省, 而得硝幾倍, 且硝品精好, 亦勝於前, 而指南, 以爲渠之所學, 猶有未盡其法者, 諸更試一年矣.”) 및 김양수, 2004 『조선후기 전문직 중인의 과학기술활동』, 『역사와실학』 27 참조.

79) 홍세태가 쓴 「金季明東槎錄序」가 『동사일록』에 대한 또 하나의 서문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홍세태의 문집에만 수록되어 있고 『동사일록』에는 실려 있지 않다. 홍세태의 문집에서는 저자의 성씨와 字 및 책의 제목 『東槎錄』만 제시되었으나, 주변 정황 및 기술 내용을 보건대 이 글은 김지남의 『동사일록』에 대해 쓴 것이 확실하다.

80) 홍세태, 「金季明東槎錄序」, 『柳下集』 권9. “나는 배 안에 있을 때는 애초에 일기를 썼으나 육지에 내리고부터는 일이 많아 경황이 없어 결국 이어서 쓸 수가 없었다. 그러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며 지나온 길의 풍경을 떠올려 보면 열에 대여섯 정도 기억이 남고, 십 년이 지나자 겨우 두셋만 떠오를 뿐이었으며, 20여년이 되자 그 두어 가지도 기억할 수 없어 아득히 꿈속의 일만 같았다. 근자에 金季明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계명은 그 때 같이 배를 타고 갔던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동사록』 1편을 내어 보여주었는데, 그걸 읽으니 번쩍 각성되는 듯해 예전에 이른바 아득히 꿈속의 일만 같았던 것들이 이제 모두 역력히 내 앞에 나열되는 것이었다”(余於舟中, 始有日記, 及下陸多事, 卒卒遂不得續爲之, 暨竣事遂歸, 念所經道途物色, 十記其五六, 而十年之後僅二三焉, 至於二

홍세태의 서문을 받고자 했던 듯하며, 이는 그가 젊은 시절 쓴 일기에 대해 50대의 나이에 이르도록 꾸준히 의미부여를 했음을 짐작케 하는 정황이다.

그 사이 그는 청나라에 가서 화약제조법을 알아 오는 등 괄목할 만한 공을 세웠지만 사대부 계급의 견제로 인해 업적에 상응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⁸¹⁾ 동년배의 역관 홍세태에게 다시 서문을 받으려 한 데는 같은 직분의 동료에게 적절한 이해를 구하는 심정도 개입해 있었다고 보인다. 홍세태는 김지남의 일기를 읽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책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탄식했다. “훌륭하군요, 그대의 일기는. 대저 일본은 해외의 멀리 떨어진 나라이며, 우리나라에서 통신사가 가는 것은 수십 년에 겨우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가는 이가 기록을 남기는 일 역시 드물기 때문에 전하는 이야기들이 상세하지 않으며 때로는 신기한 이야기를 날조해 내어 남들에게 자랑스레 떠들어댈 거리로 삼고 있으니 또한 허망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季明(김지남의 字-인용자)이 기록한 것들은 보고 들은 대로 하나같이 사실에 근거하여 썼습니다. 일본이 나라를 세운 연혁이라든가 山川과 道里의 遠近, 성곽과 樓觀의 靑려함, 인물과 財用의 풍부함, 풍속과 제도의 특이함, 그리고 양국 사이의 交聘 의례, 접대하고 宴享을 하는 의식, 손님을 대접한 飢飮, 문서를 주고받는 격식에 이르기까지 기재하지 않은 바가 없이 纖悉하게 다 갖추어져 엄연히 하나의 輿地志(=지리지)를 이루었으니 수천만 리 밖의 扶桑(일본을 가리킴)을 앉아서 살펴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아아! 당시에 동행한 이가 다만 계명 하나뿐이 아니었는데 유독 이러한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계명은 참으로 有心한 사람이로군요. 내가 예전에 계속 기록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긴 적이 있었는데, 과연 계속했다 하더라도 역시 계명이 쓴 것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⁸²⁾

十餘年則所謂二者，亦不能記，茫然若夢中事。近與金季明語及於此，季明卽其時同舟者也。出示其所記『東槎錄』一編，讀之則恍然省悟，向所謂茫然若夢中事者，今皆歷歷乎羅列于前矣。

81) 김지남은 청나라로부터 화약 제조법을 알아 와 『신전자초방』을 저술한 공로로 文城僉使에 제수되었으나 그 직후인 1698년 7월 4일부터 “譯官을 仕籍에 올리지 않음은 名器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명분으로 改正하라는 요청이 거듭되어 이는 결국 철회되었다. (『승정원일기』 1698년 7월 4일조, “譯舌之有功勞者，陞資加級，而不許仕藉，乃所以重名器也。譯官金指南，未知其功勞之如何，而遽授西陲巨鎮，此國朝所未有之事也。此路一開，後弊難防，請文城僉使金指南改正.”) 첨사는 중3품의 무관직이다.

82) 余乃撫卷而歎曰：“善乎子之記也。夫且本，海外之絕國也。我使之往，數十年僅一有焉，而其往

홍세태는 김지남의 『동사일록』이 일본에 다녀온 경험을 적은 희귀한 책 중 하나로서, 풍문이나 날조된 전설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기록임을 힘주어 말하고, 일본의 역사와 지리 및 사행 중 있었던 외교 의례와 주요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纖悉하게 기록한 이 책의 가치를 地理志에 비겼다. 홍세태는 무엇보다 이 책이 지니는 자료로서의 실용성에 주목했으며, 이런 견지에서 “이 기록은 비단 한 집안의 小乘(작은 역사서)일 뿐만이 아니”라며, 公的으로 가치 있는 사료임을 천명하게 된 것이다.⁸³⁾

실용성을 강조하며 『동사일록』의 자료적 가치를 부각시킨 홍세태의 평가는, ‘흥취 있는 읽을거리이자 가문의 보물’이라고 한 데 그친 한순석의 말에 비하자면, 저자의 의도 및 저술의 내용과 적실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현전하는 『동사일록』에 왜 홍세태의 충실한 서문 대신 의례적인 내용으로 채워진 한순석의 글이 실리게 되었는지 의문을 자아낸다.

『동사일록』이 수록된 『해행총재』의 편찬 시기를 고려하자면, 김지남이 생전에 한순석과 홍세태 등의 서문을 받아 보관하도록 했을 그의 일기가 현전하는 형태로 공개된 때는 1748년 즈음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행총재』의 편찬자 중 한 사람인 趙曦(1719~1777)의 언급이 참조된다. 조엄은 1763년 통신사행 때 徐命膺(1716~1787)으로부터 『息波錄』이라는 자료집을 받았는데, 61권 분량의 일본통신사 관

者亦罕有記志, 故其所傳說未詳, 或有杜撰新奇, 以資其頰舌而夸於人者, 其亦妄矣. 今季明所記, 隨其見聞, 一皆据實而書, 日本之立國沿革, 山川道里之遠近, 城郭樓觀之宏麗, 人物財用之富侈, 風俗制度之殊詭, 與夫兩國交聘之禮, 接待宴享之儀, 餼牢賚予之數, 文書往復之式, 無所不載, 纖悉備具, 居然爲一輿地志, 扶桑數千萬里之外, 可坐而按觀也. 噫! 當時同行者非止一季明, 而乃獨能爲此書, 季明其眞有心人哉! 余嘗以不得續紀爲恨, 而果爲之, 亦無居於季明之外者.(홍세태, 『金季明東槎錄序』, 『柳下集』 권9) 한편 한국고전번역원의 원문 DB에서는 ‘輿地志’의 ‘輿’가 ‘興’으로 입력되어 있으나 오류이다.

83) 季明此錄, 不但爲一家小乘而已, 世有如顏師古者出, 而爲〈王會圖〉則必有採焉. 季明以余日擊其地, 而言之爲可信, 要余一言以證于後. 於是書其卷首, 諗諸他日之爲是役者.(홍세태, 『金季明東槎錄序』, 『柳下集』 권9) 홍세태는 김지남의 글을 바탕으로 〈王會圖〉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을 기원했는데 이 역시 외교의 문제와 관련하여 『동사일록』의 사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말이다.

런기록이 수록된 이 책은 본디 1747년 11월에 파견되어 1748년 윤7월에 돌아온 이른바 무진통신사의 正使인 洪啓禧(1703~1771)가 주관하여 엮은 것으로 그 중에 김지남의 『동사일록』과 그의 차남 김현문의 『동사록』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⁸⁴⁾

1748년이라면 김지남이 물세한 지 30년 지난 후며, 그 장남 김경문과 차남 김현문이 잇달아 사망한 지도 10년가량 지난 시점이다. 이때까지 집안에 보관되었을 2종의 일기를 『해행총재』에 수록되도록 바친 이는 김지남의 손자에 해당하는 인물일 터인데, 그는 바로 김경문의 3남인 김홍철로 추정된다.⁸⁵⁾

앞서 언급했듯 『역어유해보』를 편찬하고 스스로 쓴 발문에 조부가 『역어유해』 편찬의 실무를 담당했다고 밝힌 김홍철은 조부와 부친 및 숙부의 뒤를 이어 1740년에 역과에 합격한 인물이다. 게다가 김홍철은 35세 되던 1747년 漢學 上通事로 예의 그 무진통신사를 수행한 바 있는데⁸⁶⁾ 이 이력 역시 그가 家藏本 일기 2편을 당시의 정사이자 『해행총재』의 원래 편찬자인 홍계희에게 바쳤다고 볼 근거가 된다.

홍계희는 1747년 통신사의 정사로 파견될 당시 大司成으로 文翰을 담당하는 고위직에 있었다. 김홍철이 선택했다고 확언할 수는 없으나, 더 적절한 홍세대의 서문이 아닌 한순석의 글이 『동사일록』에 실려 홍계희에게 바쳐진 것은, 김지남 가

84) 조엄, 『海槎日記』 1763년 10월 6일조 참조. “前後信使, 毋論使臣員役, 多有日記者. 洪尙書啓禧, 廣加蒐集, 名以『海行摠載』, 徐副學命膺翻謄之, 題以『息波錄』, 合爲六十一編, 以爲行中考閱之資. 及其遞任也, 盡送於余, 余固未及詳覽, 而概見之, (….) 只有譯士洪禹載『東槎錄』一編, 譯士金指南『東槎錄』一編, 辛卯有從事官李南岡邦彥『東槎錄』二編, 譯士金顯門『東槎錄』一編. (….)” 한편 김현문의 『동사록』은 현전하는 『해행총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일본 京都大에 단행본 자료로 전하고 있다.

85) 김경문은 전처 淸州韓氏와의 사이에서 金弘業과 金弘梁(1713~?), 후처 潭陽田氏와의 사이에서 金弘喆 등 모두 세 아들을 두었다. 그 중 장남 김홍업은 역관으로 활동한 이력이 발견되지 않으며 후사가 없어 삼남 김홍철의 외아들 金宇瑞를 입적했다. 차남 김홍량은 숙부 김현문의 양자로 입적되었고 한어 전공의 역관으로 활동했다. 김홍량의 외아들 金復瑞는 洪大容이 북경에 갔을 때 동행하며 그를 도왔던 역관 중 한 사람으로 확인된다. 鄭來僑, 『沈巖集』 권4 「資憲大夫知中樞府事金公墓表」 및 洪大容, 『淇軒書』 외집 권7 『燕記』 「衙門諸官」 1766년 1월 24일조 등 참조.

86) 김두헌, 2011 「조선 후기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의 가계와 혼인」, 『동북아역사논총』 41, 307면.

계의 역관으로서의 처지라든가 중인신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한순석은 서얼이기는 하나 허통되어 『사마방목』에 진사시 합격 사실까지 기재된 양반계급의 구성원이었지만, 홍세태는 김지남과 동년배의 역관이었던바 신분적으로 약점이 있었다. 역관인 저자 김지남의 저술이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홍세태와 같은 뛰어난 문인이자 동료인 사람의 공감과 이해보다는 양반계급 구성원의 추인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역관 金慶門 및 金弘喆의 家業 계승

1) 아들 김경문과 『통문관지』의 편찬

앞서 김지남이 국익을 위해 공로를 세웠으나 상응하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점에 대해 지적했거니와, 그 이후로도 사대부 계급에 속한 고관들은 김지남의 직무능력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를 역관의 지위에 묶어 두고자 했던 듯하다. 그럼에도 그는 말년에 이르기까지 首譯으로 활동하며 직분을 다했고⁸⁷⁾ 1708년 『통문관지』를 엮은 것과 1712년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질 때 동행한 것 등이 그의 후기 업적으로 언급된다.

이와 관련하여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다음 내용은 그가 사후에 조정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었는가와 더불어, 그의 가업이 추후 어떻게 계승되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바가 적지 않다.

閔鎭遠이 말하길 '事大交隣에 본디 정해진 규례가 없었던바 고 상신 崔錫鼎이 사역원 도제조를 맡을 때에 책자 하나를 만들어 考閱에 대비하고자 하여 역관 중 일을 잘

87) 『조선왕조실록』 1713년 6월 19일조에 평양에 머물고 있는 淸의 勅使를 응대하는 일과 관련되어 首譯 김지남이 언급되었다. 생전의 김지남이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은 『승정원일기』 1714년 10월 9일조인데, 이날 그는 副司直에 임명되었다. 이는 종5품의 무관으로 예전에 그에게 제수되었다가 철회된 僉使보다 품계가 낮다.

아는 사람을 택하여 김지남을 시켜 『통문관지』라는 이름으로 책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후 고 상신 金昌集이 김지남의 아들 김경문에게 이어 3책을 이루어내게 하니 해당 사실이 빠짐없이 갖춰져 있어 병자년 이후의 일 역시 다 기재되어 있고 조약 및 행적 또한 모두 씌어 있습니다. 김창집이 어람용으로 드리고자 하였지만 미처 진상하지 못하고 신임사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책이라면 아직도 본원(사역원)에 있으니 들이게 하심이 어떨는지요?’ 주상이 말하길, ‘내가 그것을 보고 싶으니 들이라고 하여라’라 했다.⁸⁸⁾

영조 2년에 해당하는 1726년은 김지남이 사망한 지 8년째 되는 해다. 당시 좌의정으로 노론의 거두였던 閔鎭遠(1664~1736)은 영조에게 외교문제와 관련하여 『통문관지』를 일독할 것을 권하며 그 책이 편찬된 경위를 설명했다. 민진원의 언급과 유사하게 김지남의 아들 김경문이 쓴 『통문관지』의 서문에도 애초에 이 책의 편찬이 崔錫鼎(1646~1715)의 발의로 시작되었고,⁸⁹⁾ 당시 그가 선택한 실무자가 김지남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져 있다.

한편 『통문관지』의 편찬시기에 대해서는 김경문의 서문에 ‘戊子年’과 ‘更子年’ 두 가지로 표기되어 있다.⁹⁰⁾ 이 점에 대해 학계의 논란이 있었는데 대체로 1708년 당시 36세였던 김경문이 최석정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진행했고, 이후 부친 사후

88) 鎭遠曰：“朝家本無法典，事大交隣，元無定規，故相臣崔錫鼎，爲司譯都提調時，欲作一冊子，以備考閱，擇譯官中解事人，使金指南，成出通文官誌[通文館志의 오기]爲名冊子矣。其後故相臣金昌集，使指南之子景文，續成三冊，事實該備，丙子以後事，亦詳悉載錄，約條及行跡，亦皆書之。昌集，欲爲容覽，未及進而禍作，其冊則尙在本院，使入之何如？”上曰：“予欲見之，入之，可也。”(『승정원일기』 1726년 1월 22일조) 한편 이 자료는 김윤제, 2006 『奎章閣 所藏『通文館志』의 간행과 판본』(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처음 인용되었다. 이 선행연구에서는 “최석정의 주도로 편찬사업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김지남과 역관 두세 명이 참여하여 일단 책자를 만들었으나, 김창집이 다시 이를 주도하여 김경문으로 하여금 계속 보완케 하여 3책짜리 통문관지가 편찬되었다”는 견해를 표했으나, 이는 『통문관지』 초간본에 김경문이 1708년에 쓴 서문이 있다는 점과 약간 어긋나는 점이 있는바, 본고에서는 처음부터 김지남과 김경문 부자가 전적으로 편찬 실무를 주도했다고 보고자 한다.

89) 최석정은 1706년 사역원 도제조에 임명되었다. 『승정원일기』 1706년 8월 10일조.

90) 『통문관지』의 1720년 초간본 및 1720년 重修本, 1758년 改修本에는 “戊子陽月日 漢學教授 金慶門 謹序”라 되어 있으나 1778년 改修本에는 “庚子陽月日”이라 하여 무자년을 경자년으로 고쳤다. 김구진·이현숙, 「통문관지의 편찬과 그 간행에 대하여」(동방미디어 제공 『통문관지』 해제 및 번역) <http://snu.koreaa2z.com/viewer.php?seq=43#5>

인 1720년에 비로소 『통문관지』를 출간하며 부친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⁹¹⁾

그런데 이와 같은 추정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애초 김지남에게 『통문관지』의 편찬을 지시한 최석정 역시 이미 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720년 『통문관지』의 편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쳤다고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김경문이 “相國 存窩 崔錫鼎”을 발의자로 전면
에 내세웠을 뿐, 그 뒤를 이어 『통문관지』가 실제로 1720년에 간행되도록 영향을 끼친 고위관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하지만 위의 『승정원일기』 기사에 의거하자면 최석정은 김지남에게 『통문관지』의 편찬을 명하고 1차적으로 책자가 완성된 1708년에 김경문에게 서문을 쓰도록 한 일까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후 현전하는 3책본으로 간행되도록 지시한 이는 당시 영의정이었던 金昌集(1648~1722)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1708년에 해당하는 무자년은 최석정의 지시를 받은 김지남이 아들 김경문의 실무에 힘입어 『통문관지』의 기본적 내용을 포함한 책자를 이루어낸 시기로 비정할 수 있다. 이즈음 최석정은 영의정에 재직하며 『經國大典』,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受教輯錄』 등을 정리해 『典錄通考』를 엮은 바 있는데,⁹²⁾ 『통문관지』의 찬술 역시 그러한 국고문헌 편찬 작업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1720년에 해당하는 경자년은 김창집의 지시를 받은 김경문이 비로소 현전하는 3책본의 『통문관지』를 간행한 시점이다. 이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경문은 12년 전에 쓴 서문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간행하도록 했다. 1720년이 숙종이 승하한 해인 데다 정치적인 혼란기였던 것이 한 이유인 듯하나 후고를 요한다.⁹³⁾ 이후 김경문이 사망한 뒤에 나온 1758년 이후의 개

91) 김중원, 1965 『『통문관지』의 편찬과 重刊에 대하여: 전천씨의 설에 대한 몇 가지 논의』, 『역사학보』 26; 安秉禧, 앞의 논문; 김윤제, 앞의 논문.

92) 최석정은 1701년 왕명을 받아 『전록통고』의 편찬에 착수했고, 1706년 이 책을 간행하며 서문을 썼다(崔錫鼎, 『典錄通考序』, 『明谷集』 卷8).

수본에서는 서문에 해당하는 간지만 ‘戊子’에서 ‘庚子’로 바꾸었고, 1778년에 대폭 개수된 重刊本이 나오며 李湛의 서문이 추가되게 되었다.⁹⁴⁾

요컨대 김경문은 부친의 유업을 계승하여 역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했고, 이 점은 그가 실제로 『통문관지』를 편찬하고 서문을 붙인 데서 잘 드러난다. 앞서 29세의 김지남이 민정중의 지시를 받아 『역어유해』의 편찬에 간여하면서도 연장자인 동료 신이행이라든가 김경준 등의 뒤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과 유사하게, 36세의 김경문은 『통문관지』의 편찬 실무를 주관하면서도 부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가급적 감추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역어유해』에 서문 등이 없어 김지남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과 달리, 김경문은 스스로 『통문관지』의 서문을 쓰며 자신의 이름과 아버지의 존재를 드러냈고 자신의 가계가 비록 신분이 낮지만 高官의 지시에 힘입어 국가의 중대한 사업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자부심을 조심스레 표했다.⁹⁵⁾ 또한 “역관이란 나라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그 사람은 비록 미천하지만 임무는 막중하니, 사대교린을 함에 반드시 그 법도가 있어 그것을 실행하는바, 또 반드시 규정과 品式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⁹⁶⁾라고 한 김경문의 서문은, 그 부친이 1682년 일본에서 했던 “사대교린이란, 나라마다 그만둘 수 없는 것이며, 環人(외국에 파견되는 실무자)과 寄象(통역)은 예로부터 있었다”⁹⁷⁾라는 말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역관으로서의 직

93) 이 2년 뒤인 1722년의 신임사화로 간행을 지시한 당사자인 김창집은 賜死되었다. 한편 김창집은 노론 4대신 중 한 사람으로, 소론의 영수였던 최석정과는 대립적인 입장에 있었다.

94) 김윤제, 앞의 논문, 65-67면. 한편 이담(후에 李洙로 개명)은 앞서 언급했듯 김지남이 일본 통신사로 파견되던 1682년에 餞別詩를 써 준 金山李氏 李長榮의 5대손이다. 이담의 증손자인 李應寅(1829~?) 역시 역관으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냈는데, 규장각에 소장된 『眉叟記言』(古 0270-8)에 그의 장서인이 찍혀 있기도 하다. 김수진 외, 2016 「규장각 소장 集部 도서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2): 藏書印 조사를 중심으로」, 『규장각』 49, 158-159면.

95) 顧慶門父子, 身居下流, 無能爲役, 而猥承公命, 從事其間, 所以筆削去就, 一遵公之指授, 終能有成, 得以厥名於卷端, 斯其非大幸歟?(김경문, 「通文館志序」)

96) 譯者, 有國之不可無者也. 其人雖微, 爲任則重, 惟其所以事大交隣者, 必有其道而其行之, 又必有章程品式之具.(김경문, 「通文館志序」)

97) “事大交隣, 有國之不可已者, 環人之職, 寄象之官, 自古有之.”(김지남, 『동사일록』 8월 21일

업적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김경문이 역관으로서 가졌던 진전된 직업의식에 상응하여 사회적 인정의 분위기도 아들의 대에 이르러 조금 더 나아진 징후를 보이는데, 이는 김경문에 대한 각계의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김지남의 묘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산 195-5 우봉김씨 묘역에 남아 있으며 세워진 비석의 銘文을 통해 그의 생애를 대략 확인할 수 있는데⁹⁸⁾ 그에 따르자면 이 비문의 내용은 아들 김경문이 쓴 것이다.⁹⁹⁾ 그 내용 중에 흥세태와 南鶴鳴(1654~1722)¹⁰⁰⁾이 쓴 묘도문자가 幽堂 안에 간직되었다고 한 것이 보이지만, 현존하는 두 사람의 문집에는 그런 글이 수록되지 않은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비해 김경문에 대해서는 각계 인사의 구체적인 언급을 더 풍부하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같은 묘역에 김경문의 묘와 묘비가 있는데, 그 비문의 내용을 쓴 사람은 흥세태에게 시를 배웠다고 알려진 여항문인 鄭來僑(1681~1757)다. 이 글은 「資憲大夫知中樞府事金公墓表」라는 제목으로 정내교의 『浣巖集』 권4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정내교는 이 글에서 고조부 金德春에서 증조부 金大忠, 조부 金汝義, 부친 김지남으로 이어지는 김경문의 가계를 밝혔다. 그리고 18세에 역관에 수석으로 합격하

조) 김지남의 말 중 ‘有國之不可已者’라는 표현이 김경문에게 와서 ‘有國之不可無者’로 변주되는 듯하다.

98) 김양수, 앞의 논문, 21-22면 참조.

99) 김지남의 묘비에 “洪滄浪世泰甫, 晦隱南處士鶴鳴狀誌于幽堂”이라 새겨져 있다. 김양수, 위의 논문 21면에서 “洪滄浪世泰 用晦隱南處士 鶴鳴狀誌”이라 읽고 구두를 끊은 것을 묘비의 사진을 확인하여 수정했다.

100) 남학명은 南九萬(1629~1711)의 아들이다. 소론의 영수로 영의정에 재임 중이던 남구만은 김지남의 『新傳煮硝方』 간행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왕조실록』 1796년 5월 12일조에 “肅廟 무인년 사이에 고 정승 남구만이 건의하여 역관 김지남이 北京을 왕래할 때에 입수한 『煮硝新方』(=신전자초방)을 武庫로 하여금 간행하여 중외에 반포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런 인연 때문에 그의 아들 남학명이 김지남을 위해 글을 쓰게 된 듯하다.

고 1712년에 교회직으로 승진했으며 같은 해에 백두산정계비의 일로 청나라 사신 穆克登을 응대하였다는 등 역관으로서 그의 이력을 언급했고, 1737년 세자 책봉을 奏請하는 사신단을 수행하느라 길을 나서다가 風痺로 쓰러져 결국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마지막 모습까지 소상히 그려낸바 정내교가 쓴 墓表는 김경문의 생애를 재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김경문을 대상으로 쓴 것은 아니지만 그와 사돈지간이었던 왜학 전공의 역관 洪舜明(1677~1745)¹⁰¹⁾을 위해 고위관료 趙顯命(1690~1752)이 쓴 「副護軍洪君墓表」의 서두에는 김경문이 먼저 언급되기도 했다. 1745년에 우의정에 재임했던 조현명은

“知事 김경문과 護軍 洪순명은 나와 잘 지내던 사람이다. 두 사람은 강개한 성품에 지조와 절개가 있었는데, 김 군은 오랑캐의 일을 잘 알고 홍 군은 왜의 정세를 잘 알아, 때면 남쪽과 북쪽에 일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두 사람에게 자문하여 처리했다. 이제 두 사람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니 인재를 얻기는 어렵고 잃기는 쉬운 것이 역관에 대해서도 외려 그러하거늘 이에 더 나아간 사람에 있어서라!”¹⁰²⁾

라 하여 1737년에 세상을 떠난 김경문을 기억하며 그를 대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문 대상으로 꼽았다. 『일성록』등에 따르자면 김경문은 그 이후로도 어학 능력과 외교 수완을 갖춘 이상적인 역관으로 기억되었고, 그에 필적하는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¹⁰³⁾ 게다가 김경문은 부친이 갖추지 못했다고 스스로 부끄러워했던 문학적 능력도 어느 정도 함양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전하지

101) 홍순명은 김경문의 삼남 김홍철의 장인이다.(趙顯命, 『歸鹿集』 권14 「副護軍洪君墓表」)

102) 金知事慶門, 洪護軍舜明, 余所善也. 二人者, 慷慨有志節, 而金君習虜事, 洪君習倭情, 每南北有事, 余必咨二人以爲決. 今二人者, 相繼死矣. 嗚呼! 人才難得而易失, 在譯舌尙然, 況進於是者乎!(趙顯命, 『歸鹿集』 권14 「副護軍洪君墓表」)

103) 『일성록』 1793년 9월 5일조에 “사방의 나라에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재를 참으로 구하기 어렵고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을 만한 적임자를 찾기는 더욱 어려운 법이니 매번 각별히 뽑아서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찌 아무런 까닭 없이 그런 것이겠는가. 하지만 사신은 적임자를 얻었다 해도 지금 같은 역관의 모양새대로라면 어떻게 金慶門이나 李樞 같은 공적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정조의 언급이 보인다.

는 않지만 그는 『蘇巖集』이라는 문집을 남길 정도의 문장력이 있었으며,¹⁰⁴⁾ 부친의 동료 홍세태와도 詩를 매개로 교유했다.¹⁰⁵⁾ 1712년 청나라에서 穆克登을 差使로 파견하여 조선과 공동으로 국경을 답사하게 하고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워 압록강과 두만강을 양국 국경으로 확정하게 되었을 때, 김경문은 역관으로 전 과정에 참여하였고 당시의 경험을 홍세태에게 구술한바 『柳下集』에 수록된 「白頭山記」가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2) 손자 김홍철과 『역어유해보』의 편찬

김지남이 사망했을 때 4살이던 김홍철은 역관으로 성장하여 조부와 부친을 계승했다. 그러나 김경문의 3남인 그가 가업을 잇게 되었을 때를 이 역관 三代의 전성기라 부르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李家煥(1742~1801)이 家藏本 『古文淵鑑』에 붙인 跋文에, 이 조부와 손자의 대조적 상황이 명료히 포착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책은 본디 처음 이루어졌을 때 御覽用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용한 종이 나 먹의 품질이 훌륭하며 황색 비단으로 장정되어 있다. 나중에 親王 아무개에게 하사됐는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首譯 金指南과 친분이 돈독했던지라 이 책을 손보아 그에게 주었다. 김지남이 죽고 나자 집안이 가난하여 그 손자인 김홍철이 이 책을 지킬 수 없었다. 선친(李用休-인용자)께서 그 소문을 듣고 鹿馬를 칩매하여 그것을 얻도록 하셨다. 이에 우리 집에는 결국 말이 없게 되었다. 아아! 서적의 주인이 거듭 바뀌는 것이 이와 같다.¹⁰⁶⁾

『古文淵鑑』은 1713년 冬至使兼謝恩使 일행을 통해 청 康熙帝가 조선에 하사한 것으로 잘 알려진 백과전서류의 책이다.¹⁰⁷⁾ 김지남이 이 책을 증여받은 시기 역시

104) “著 『不堪錄』 六卷, 『蘇巖集』若干卷藏于家.”(정내교, 「資憲大夫知中樞府事金公墓表」, 『澆巖集』 권4) 김경문의 저술인 『불감록』과 『소암집』은 모두 현전하지 않는다.

105) 홍세태의 『柳下集』 卷12에 「金守謙慶門見過, 用明詩韻賦」가 있어 참조된다.

106) 此本爲書初成, 進御呈覽者也, 故紙墨糧良, 用黃絹粧. 後以賜親王某, 某與本國首譯金指南厚, 輟以贈之. 指南死, 家貧, 其孫弘益, 不能守. 先君聞之, 斥鹿馬以取之. 自是, 家遂無馬. 噫! 書之屢易主如此.(李家煥, 『錦帶詩文抄』 下卷 「古文淵鑑跋」)

이즈음이 아닌가 하는데, 청 황제의 일족과 친분이 두터워 어람용의 호화로운 책을 증여받았다는 일화 자체가 한어 역관으로서 그의 위상을 극명히 드러내 보인다.¹⁰⁸⁾

그런데 한때 김경문의 장서이기도 했을 『고문연감』의 주인이 그 아들 대에 이르러 바뀐 점은 주목되는 일이다. 소문을 듣고 무리하여 그 책을 구매한 李用休(1708~1782)는 김홍철과 같은 세대의 사대부 문인인데 개성적인 문장가이자¹⁰⁹⁾ 장서가로 알려져 있다.¹¹⁰⁾ 기이한 책이 많기로 유명한 이용휴의 장서 가운데 『고문연감』이 포함되게 된 과정이 역관 삼대의 경제적 몰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¹¹¹⁾

앞서 언급했듯 김홍철은 1747년 일본통신사의 上通事로 흥계회를 수행한 바 있다.¹¹²⁾ 그는 45세 때인 1759년이 되어서야 교회직에 올랐다. 조부와 유사하게 늦은

107) 崔德中의 『燕行錄』 1712년 2월 7일조에 “通官以皇帝賜冊，矜誇甚至，心自笑也。取考其冊，則『全唐詩』十二匣一百二十卷，古詩律也，『淵鑑類函』二十匣一百四十卷，(…) 『佩文韻府』二十匣九十五卷，(…) 『古文淵鑑』四匣二十四卷，此乃『左傳』之類也。”라 하여 역관이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책이라며 몹시 자랑하는 것을 가소로워하면서도 펼쳐 보았는데, 그 중에 『고문연감』 4갑 24권이 있다고 했다. 최덕중은 당시 副使 尹趾仁을 수행한 軍官이었다.

108) 『清實錄』 康熙 44年(1705) 1월 23일조에 “○戊午，頒賜王以下內外滿漢文武大臣及景山八旗盛京官學『古文淵鑑』各一部。”라 하여 王 이하 내외의 문무대신 등에게 『고문연감』을 1부씩 頒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김지남에게 『고문연감』을 준 親王 某氏도 이 때 그 책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09) 안대회, 1999 「18세기 중기 시의 혁신적 변모: 이용휴, 奇詭와 실험정신」, 『18세기 한국 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237-277면.

110) “惠寶(이용휴의 호)의 장서가 펍 풍부하다는데, 가지고 있는 것 모두가 기이한 책들이며 평범한 책은 한 권도 없다고 한다.”(俞晚柱, 『欽英』 1784년 1월 13일조: 김하라 편역, 2015 『일기를 쓰다』2, 들메개, 97-99면)

111) 한편 심경호, 2013 『한문산문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48면에 김지남과 『고문연감』에 관해 “영조 연간에는 청나라 강희제의 『御選古文淵鑑』이 사대부들 사이에 유행했다. 역관 김지남이 수입해 온 책이 있었는데 李沂가 김지남의 손자 김홍철로부터 구입했다. 이기의 아들 이용휴는 그 경위를 「고문연감발」에서 밝혔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오류로 판단된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고문연감발」은 이용휴가 아니라 이가환의 글이다. 또한 이용휴의 부친은 이기가 아니라 李沉이며, 김홍철로부터 『고문연감』을 구입한 이도 이용휴 자신이지 그 부친이 아니다. 1715년생인 김홍철은 이용휴와 동시대인으로 李沉(1671~1713)이 사망한 뒤에 태어났다.

112) 김홍철은 일본통신사를 수행한 공로로 陞敘되었다. 『승정원일기』 1748년 8월 21일조 참조. (上命 履覆書傳教曰: “通信正使承旨洪啓禧, 副使弼善南泰蒼, 堂上譯官朴尙淳, 上通事李

승진이었다.¹¹³⁾ 이후 그는 1763년 2월 파견된 奏請使의 수행원으로 북경에 다녀왔는데,¹¹⁴⁾ 환국 직후 그가 목격된 것은 같은 해 10월 두만강변의 회령에서였다. 당시 함경도의 監市御使로 회령에 파견된 洪樂仁(1729~1777)은 김홍철이 낭독하는 『水滸傳』을 듣고 다음과 같은 한시를 썼다.¹¹⁵⁾

清濁高低任舌牙,	맑고 탁하고 높고 낮은 소리 혀와 어금니에서 자유로이 구사되니
深宵憑几對燈花.	깊은 밤 안석에 기대어 등불을 마주하네.
靖康傑俠歸萑藪,	정강(靖康: 北宋 欽宗의 연호)의 호걸과 협사가 도적 소굴로 귀의 함에
聖歎文章冠稗家.	김성탄의 문장은 패설가의 으뜸이네.
變化不窮驚鬼魅,	귀신을 놀래킬 무궁한 변화요
端倪莫測走龍蛇.	용과 뱀이 내달리듯 갈피를 헤아릴 수 없네.
宮音羽調如相叶,	궁음과 우조가 서로 어울리니
絕勝邊城聽暮笳.	저문 변방 호가 소리보다 몹시 듣기 좋네. ¹¹⁶⁾

위의 시는 金聖嘆(1610~1661) 評批本 『수호전』을 읽은 사람 중에 고위관료와 역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만큼 그 독자층이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에 해당

昌基竝加資. 從事官副司果賣命采, 上通事鄭道恒, 金弘喆竝陞敘.”)

- 113) 김홍철의 부친 김경문도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세에 교회직으로 승진했다. 반면 앞서 『통문관지』 중간본 서문을 쓴 것으로 언급된 李湛의 경우 29세 때 승진했으며 그를 포함한 金山李氏 역관들은 대체로 승진이 빨랐다.
- 114) 김홍철은 같은 해 7월에 귀환하여 상급으로 망아지 한 마리를 받았다. 命存謙書傳教曰: “陳奏兼奏請正使長溪君 棟, 廐馬一匹面給, 鞍具代豹皮一令賜給, 奴婢四口田十五結, (…)
譯官金弘喆·金復瑞·李運成·洪命福 (…)
各兒馬一匹.”(『승정원일기』 1763년 7월 7일조)
- 115) 김명호, 2015 「李彥瑱과 『虞裳傳』」, 『한국문화』 70, 189면. 영의정 洪鳳漢의 장남인 홍낙인은 1763년 일본 통신사행의 종사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정사 조엄과 인척간이어서 교체되고 그 대신 같은 해 10월 함경도 감시어사로 파견되었다.
- 116) 홍낙인, 「聽金譯弘喆讀水滸傳」, 『安窩遺稿』 권2. 한편 이 시는 안대회, 2009 「조선의 비주류 인생」, 『한겨레 21』 760호, 한겨레신문사 및 간호윤, 2010 『아름다운 우리 고소설』, 김영사 등에 인용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안대회의 번역을 참조하되 약간 고쳤다. 간호윤의 책에서는 김홍철의 생몰년을 잘못 기재하였고 그를 傳奇叟 중의 한 사람으로 들었으나 본고에서는 이 논의와는 견해를 달리 한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의정 洪鳳漢(1713~1778)의 장남이자 20대의 고관으로 안석에 기대어 소설을 들은 흥낙인과 자식뻘인 윗사람을 위해 『수호전』을 조선식 한자음으로 낭독했을 49세의 ‘漢語’ 역관 김홍철의 처지는 몹시 달랐던바 이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리라 본다. 하물며 흥낙인은 함경도 대청무역의 감독관이었고 김홍철은 그런 교역의 場인 開市의 역관이었으므로 이 둘은 업무상 수직적 상하관계에 있었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수호전』을 똑같은 방식으로 읽고 수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흥낙인이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그를 구성진 이야기꾼으로 대상화하는 기존의 시선에는 김홍철의 존재가 그다지 고려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김홍철은 한동안 開市 역관으로 활동했던 듯한데, 1768년 11월 28일에는 업무상 일어난 문제로 인해 동료 역관들과 함께 체포된 후 杖 60대에 奪告身(직첩을 빼앗음) 一等의 처벌을 받고 석방되었다.¹¹⁷⁾

이후 그는 1770년 10월에 출발하게 될 冬至使의 수행 역관 중 한 사람으로 국왕 영조의 앞에서 『老乞大』의 한 단락을 암송했다.¹¹⁸⁾ 그리고 그가 북경으로 출발한 이후인 1770년 11월 9일, 영의정 金致仁(1716~1790)은 국왕을 면대한 자리에서

117) 李在簡以義禁府言啓曰：“開市譯官金大鉉、金弘詰、朴泰根等，施以告身一等之律事，傳旨啓下，而特教定律名者，勿捧原情，直爲草記勘處，曾有定式矣。金大鉉、金弘詰、朴泰根，既已拿囚，依法文，各杖六十收贖，奪告身一等放送之意，敢啓。”傳曰：“知道。”(『승정원일기』 1768년 11월 27일조)

118) 1770년 6월 23일 승정전에 동지사의 三使가 입시하여 進伏하자 영조는 ‘賤臣’들도 모두 들어오라 명하였고 이에 수행 역관들이 입시했는데 그 중 김홍철이 포함되어 있었다. 영조는 역관들에게 한 사람씩 나와서 이름을 아뢴 후 『노걸대』 한 단락을 암송해 보라고 하였고 偶語(=회화)도 해 보라고 했으며 역관들이 명령대로 행하고 나자 찬선을 하사하며 나누어 먹으라고 했다. 庚寅六月二十三日申時，上御崇政殿，三司臣同爲入侍時，右副承旨徐浩修，假注書崔鈺，編修官金聖猷，記事官柳誼，上使慶興君 梅，副使宋瑩中，書狀官李命彬，以次進伏訖，上命賤臣偕入，赴燕譯官入侍，譯官朴道貫、金德潤、金弘詰、邊翰基、慶弘運、李城、張濂、玄啓桓、趙箕鼎、金宏夏、金漢卿、金泰熾、劉鳳翼、高師儉、趙東浩、金在協進伏，上曰：“一人式進前陳姓名後，誦奏『老乞大』一大文，可也。”諸譯官進前陳姓名，誦奏『老乞大』一大文訖，上命偶語譯官，偶語訖，上曰：“汝等當遠行，故特命宣饌，汝等退出分食，可也。”諸譯官退出。(『승정원일기』 1770년 6월 23일조)

서 “漢學 訓上 김홍철은 故 首譯 慶門의 아들인데 작년에 抄啓된 인원수가 많은 관계로 서용에서 누락되었습니다. (...) 加資를 시행함이 어떠할는지요?”하고 아뢰었고 영조는 그 말대로 하도록 윤허했는데,¹¹⁹⁾ 이로 보아 김치인은 김홍철과 그 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김홍철은 북경에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1771년 6월 27일에 여러 동료들과 더불어 다시 한 번 국왕의 앞에 불려가 한어와 해당 번역문을 암송하고 弓矢를 하사받았다.¹²⁰⁾ 영조가 승하한 이후인 1776년 9월 12일에 加資된 것과¹²¹⁾ 이듬해 ‘首譯’으로 일컬어진 것을 보면 그는 한동안 역관으로 안정된 지위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¹²²⁾

1777년, 63세의 그는 진도와 영광에 표류한 漢人들을 중국으로 인솔해 가는 齋咨官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¹²³⁾ 김홍철은 1777년 10월에 출발한 進賀謝恩陳奏兼冬至使의 일행과 만난바 李珥의 『燕行記事』 1778년 2월 4일조에 재자관 김홍철에 대한 언급이 있고, 1778년 3월에 출발한 謝恩兼陳奏使의 일행으로 따라간 李德懋

119) 致仁啓曰: “倭學訓上崔鳳齡, 頃有自本院調用之特教, 而加資之外, 無他調用之道. 漢學訓上金弘哲, 卽故首譯慶門之子, 而昨年抄啓時, 以數多, 見漏矣. 兩人卽可任使於前頭, 一體加資施行, 何如?” 上曰: “好矣, 依爲之.”(『승정원일기』 1770년 11월 9일조)

120) 澤孚承命出來, 與漢學兼教授洪相簡, 金夏材, 漢學訓上洪大成, 金弘詰, 淸學訓上李惠迪, 漢學年少譯官李邦燁, 劉瑗, 淸學年少譯官方世弘, 金達三, 偕入進伏. 上曰: “淸, 漢學譯官, 各以其所學, 俱釋誦奏, 可也.” 大成, 弘詰, 邦燁, 瑗誦奏漢學訖, 惠迪, 世弘, 達三, 又誦奏淸學. 上曰: “漢, 淸學率來訓上三人, 各賜弓矢, 漢, 淸學官入侍四人, 各弓子壹張賜給.”(『승정원일기』 1771년 6월 27일조)

121) 別啓請譯官金弘詰嘉義, 今加資憲, 高師彥, 李惠迪已上折衝, 今加嘉善, 前正金復瑞, 前奉事吳道成, 前僉正玄啓禎, 已上通訓, 今加通政, 已上譯官加資事承傳.(『승정원일기』 1776년 9월 12일조)

122) 鄭民始以迎接都監言啓曰: “卽接遠接使移文, 則首譯金弘詰, 身病猝重, 故行中凡事, 輒多苟艱之中. 至於弘濟站舉行之節, 與他站有異, 別定首譯一人, 初六日朝前, 使之待令於高陽站云, 令該院, 別澤首譯一人, 罔夜下送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승정원일기』 1777년 3월 5일조) 이 때 김홍철은 원접사를 따르는 차비 역관으로 차출되었는데 당시 신병이 위중하여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듯하다.

123) 申應顯以承文院官員, 以都提調意言啓曰: “今此珍島, 靈光兩處漂漢人, 入送咨文, 正書安寶後, 定禁軍騎撥下送于領去齋咨官金鴻詰所到處, 以爲傳給之地, 何如?” 傳曰: “允.”(『승정원일기』 1777년 11월 29일조)

(1741~1793)의 「入燕記」에도 “표류인을 데리고 갔던 재자관 김홍철이 돌아오는 길에 이 柵에 유숙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1777년 10월에 출발한 동지사 일행이 돌아오기도 전인 1778년 3월에 다시 진주사를 파견한 것은, 먼저 간 일행이 청나라 황제에게 올린 외교문서의 문구가 문제가 되어 三使가 견책을 받은 일을 미리 보고해 왔기 때문이었다. 조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사과하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 급히 蔡濟恭을 正使로 하는 사신단을 파견했고,¹²⁴⁾ 이덕무는 당시 서장관이었던 沈念祖의 수행원으로 북경에 들어가는 길에 조선으로 돌아오는 김홍철을 보았던 것이다.

김홍철은 돌아온 직후 엄한 처벌을 받았다. 1778년 4월 5일 영의정 金尙喆(1712~1791)은 동지사의 三使가 견책을 받았으니 일을 주관한 역관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재자관 김홍철은 咨文의 글자 하나를 잘못 쓴 일을 官銀 250냥을 들여 해결했으므로 징계해야 한다고 하며, 역관은 拿處하고 김홍철은 定配해야 한다고 정조에게 아뢰었다. 김홍철의 자문에 대해서는 중국 측 사료에도 기록되어 있어 참조되는데,¹²⁵⁾ 그에 따르면 김홍철에게는 별다른 잘못이 없어 보이는바, 김상철의 처분은 약간의 의문을 남긴다. 그럼에도 정조는 그의 말에 따라 “매우 형편없다. 정배하라”는 하교를 내렸다.¹²⁶⁾ 사흘 뒤인 4월 8일 의금부에서는 재자관 김홍철을

124) 『승정원일기』 1778년 3월 3일조 참조.

125) 禮部奏朝鮮國護送遭風民人回籍之齋咨官役，應照例賞給，得旨依議。本內稱商民趙永禮等七十五名，漂至朝鮮，船隻破壞，經該國王逐一詢明情由，專差金鴻喆等管護前去等語，該國咨稱前去，理所宜然，其後則爲該部出語，既由朝鮮送至中國，自應稱爲前來方合，乃復沿該國原咨，亦云差官管護前去，依樣葫蘆，豈去來字義，亦不能解乎？阿肅、景福、俱係滿洲翰林，何以於此等文義，尙不能看出，朕所以謂滿洲進士出身之人，最爲無用，至禮部漢堂司官，俱係科甲人員，乃於行文不通若此，又安用是科甲爲耶？著飭行。(『清實錄』 1778년 乾隆 43年 2月 29日조) 『청실록』에서는 재자관 김홍철이 쓴 문구를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고, 그가 쓴 글귀 중 ‘前去’(앞으로 가다)를 청나라 쪽 관원들이 자기네 공문서에 그대로 따라 써서(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前來저쪽에서 오다’라고 바꿔 써야 한다) 사리에 맞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황제가 질책하는 내용이며 그 화살은 ‘글을 잘 모르는 쓸모없는 청나라의 관리들’을 향하고 있다. 한편 『청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김홍철이 “金鴻喆”로, 이 갑과 이덕무의 기록에는 “金弘喆”로 되어 있으나 모두 ‘재자관’을 칭하고 있으므로 같은 사람임은 틀림없다.

경상도 양산군으로 압송하겠다는 草記를 올렸고, 국왕은 윤허했다.¹²⁷⁾ 이 이후 별도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며 김홍철은 같은 해에 64세로 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유배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김홍철은 61세가 되던 1775년에 『역어유해』의 보유편인 『역어유해보』를 엮으며 다음과 같이 그 경위를 언급했다.

다만 책(=『역어유해』)이 간행된 지 백 년이 되어 가므로 고금의 차이라든가 때맞춰 사용해야 할 때 빠진 것이 없을 수 없었는데, 蘇山 金 相國이 院(사역원-인용자)에 부임했을 때 나에게 보유편 만들기를 명했다. 나는 감히 祖述을 자임할 수는 없었지만 오직 명을 받들어 이 일을 도모하였으니, 舊例를 살피고 고찰하고 수집한 결과 별도로 한 권을 만들고 또 몇 마디 말을 덧붙여 ‘역어유해보’라는 이름을 붙였다. 책이 이루어지니 이제 都提學 김 상국이 간행을 명했다.(…) 을미년(1775) 여름 峇城 金弘喆 삼가 쓰다.¹²⁸⁾

김홍철은 이 책의 간행과 관련하여, 『역어유해』의 보유편을 엮도록 지시한 ‘蘇山 相國’이라는 고위관료의 존재를 중요하게 언급했다. 그는 『역어유해보』가 편찬된 1775년을 즈음하여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영의정을 역임한 金致仁으로 추정된다.¹²⁹⁾ 김치인이 속한 청풍김씨 가문은 18세기 중반부터 인천 蘇來山 일대를 세거지로 삼았던바,¹³⁰⁾ ‘소산’이 바로 이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다.¹³¹⁾ 김치인은 1767

126) 『승정원일기』 1778년 4월 5일조 참조.

127) 『승정원일기』 1778년 4월 8일조 참조.

128) 김홍철, 「譯語類解補跋」, 『譯語類解補』

129) “蘇山 相國”의 신원에 대해서는 여태껏 밝혀져 있지 않은 듯하다. 정광·윤세영, 1998 『사역원 역학서 책판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에서는 그를 같은 글 아래에 언급된 ‘김상철’과 같은 인물로 간주했으나, 安秉禧, 앞의 논문에서는 문맥상 같은 인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미상으로 남겨두었다.

130) 이근호, 2008 「조선후기 인천지역 學人의 분포와 성향」, 『인천학연구』 8, 191-225면. 소래산은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산으로, 김치인의 부친인 金在魯의 묘역도 여기에 있다.

131) 또한 김치인의 5촌 조카이자 그와 정치적 노선을 함께 했던 金鍾秀는 「次呈蘇山叔父」(『夢梧集』 卷1)라는 시를 남기고 있는데, 그 중 “退相騎牛至, 天寒臥病廬”(은퇴한 재상이 소

년 3월 19일에 영의정이 된 이래 1772년 3월 10일에 삭직될 때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영의정에 재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¹³²⁾ 그리고 그는 1770년에 김경문의 아들 김홍철에게 자급을 올려 주기를 청원했던 바로 그 사람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김홍철은 1775년 책이 완성되었을 당시 간행을 명한 ‘김 상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빠뜨리지 않았다. 여기 언급된 ‘김 상국’은 金尙喆(1712~1791)로,¹³³⁾ 그는 1775년 윤10월 26일에 영의정으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1777년 5월 28일에 다시 영의정에 임명된 바 있다. 그는 1778년에 재자관 김홍철의 실수를 부각시켜 유배형에 처해지도록 건의했다.

김홍철이 조심스레 언급하고 있는 두 유력 정치인의 존재는 그의 삼대가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역관으로서의 직업적 정체성이나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신분제 사회에서 중인인 이들의 처지가 아직 취약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역관으로서 의미 있는 경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고관의 지지와 인정에 의지해야 한다는 점을 김홍철의 고단한 삶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김홍철이 스스로 쓴 『역어유해보』의 발문에는 외국어 능력을 기본 소양으로 삼는 직업인에게 걸맞은 식견을 지니고 자신의 편찬 작업에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그의 면모가 드러나 있다. 즉 그는 원래의 『역어유해』가 간행된 지 100년이 되어 시대의 변화를 그 언어가 수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역어유해보』 편찬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발문을 맺으며 “峯城 김홍철”이라고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 ‘잠성’은 황해도 牛峰의 다른 이름으로, 김홍철의 본관이 우봉이며 그가 많은 역관을 배출한 대표적 중인 가문인 牛峰金氏의 구성원임을 나타낸다.¹³⁴⁾

중인 가문의 구성원이자 전문 직업인인 역관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이 드

를 타고 찾아오셨는데/ 추운 날씨에 오두막에 병들어 누웠네)라는 시구에서 당시 영의정에서 물러나 있던 김치인을 언급했다. 제목의 ‘蘇山叔父’ 역시 김치인을 가리킨다.

132) 『조선왕조실록』 해당 일자 참조.

133) 김상철이 사역원제조를 겸한 데 대해서는 安秉禧, 앞의 논문, 56면 참조.

134) 김양수, 2007 앞의 논문.

러내는 김홍철의 이 태도는 기존의 『역어유해』에 서발문 등이 없어 撰者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과 대조적이고, 그의 부친 김경문이 아직 표명하지 못했던 가문의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그는 자신의 계급과 직능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을 명확히 표명하기 시작한 김경문 세대를 계승한 위에, 삼대째 역관을 한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도 뚜렷한 자부심을 표하고 있는바, 이 점은 18세기 후반 역관층의 의식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역어유해』와 『역어유해보』의 완간은 거의 온전히 김지남 三代의 손에서 이루어졌으나, 사역원을 관장하던 최상층의 관료들 역시 적절한 시점에서 이들의 작업을 지지하고 추진해 주었다. 김지남이 『역어유해』를 편찬할 때에는 민정중의 발의와 지지가 있었고, 김홍철이 『역어유해보』를 편찬할 때에는 김치인과 김상철의 개입과 추진이 있었다. 아울러 김경문의 『통문관지』 편찬에도 최석정과 김창집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영의정에 준하는 관직에 있으면서 사역원 提調를 겸임하던 중이었으며, 청나라에 파견되는 사신단의 총책임자로 복무하기도 했던바¹³⁵⁾ 외교에 막중한 책임을 지닌 당사자로서 사역원이 국가의 중대한 사안인 외교 문제를 수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기관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기존에 신이행, 김경준, 김지남 세 사람의 공저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진 『역어유해』와 관련하여 주변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어휘집의 편찬에 김지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김지남이 1682년 일본 통신사의 압물통사로 수행했을 때 쓴 『동사일록』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가 당대 한어의 발음과 관련하여 치밀한 전문성을 체현하고 있었다는 점과, 외교의 실무자

135) 민정중은 1669년에, 최석정은 1708년에, 김창집은 1712년에, 김상철은 1771년에, 김치인은 1776년에 각각 중국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로서 식견과 수완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전공한 분야의 이론과 실제에서 공히 역량을 보유한 이상적인 전문직 종사자로서, 이런 그가 『역어유해』 편찬의 실무를 주관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판단된다. 1680년대 민정중이 사역원 제조로 재임하며 우어청을 설치하고 외국인을 교수자로 채용하여 역관의 어학 능력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펼쳤을 때 김지남은 젊은 한어 역관으로 그러한 교육정책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역어유해』와 같은 사역원의 교재를 편찬할 당사자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이후 그의 장남 김경문은 『통문관지』를 편찬하면서 부친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편찬의 실무를 담당했다. 김경문의 아들 김홍철은 조부의 저술인 『역어유해』를 계승하여 보완한 『역어유해보』를 편찬하고 발문을 붙여 간행함으로써 『역어유해』라는 일련의 저술을 완간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뚜렷한 자각은 물론 역관 가문인 우봉김씨로서의 자부심까지 드러냈다. 이 점에서 어휘집 『역어유해』는 증인에 대한 신분적 차별 가운데서도 김지남 삼대의 가업이 성실히 이어졌음을 증언하는 희귀한 자료가 된다.

논문투고일(2017. 5. 15), 심사일(2017. 5. 18), 게재확정일(2017. 6. 5)

참고문헌

- 김지남, 1682 『東槎日錄』(『국역 해행총재』, 민족문화추진회, 1974).
- 金指南·金慶門, 2006 『通文館志』(上-下), 서울대학교 奎章閣韓國學研究院.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고전국역 편집위원회 편, 1998 『국역 통문관지』(1-4),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2005 『譯語類解: 譯語類解補』, 서울대학교 奎章閣.
- 곡효운, 2016 「輕唇化音變兩個「例外」考」, 『중국언어연구』 62, 한국중국언어학회.
- 김두현, 2011 「조선후기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의 가계와 혼인」, 『동북아역사논총』 41, 동북아역사재단.
- 김명호, 2015 「李彥瑱과『虞裳傳』」, 『한국문화』 70, 서울대학교 奎章閣韓國學研究院.
- 김수진 외, 2016 「규장각 소장 集部 도서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2): 藏書印 조사를 중심으로」, 『규장각』 49, 서울대학교 奎章閣韓國學研究院.
- 김양수, 2003 「조선후기의 교회역관: 『교회청선생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4, 조선시대사학회.
- _____, 2004 「조선후기 전문직 중인의 과학기술활동」, 『역사와실학』 27, 역사실학회.
- _____, 2007 「조선후기 우봉김씨의 성립과 발전」, 『역사와실학』 33, 역사와실학회.
- 김양수 외, 2008 『조선후기 외교의 주인공들』, 백산자료원.
- 김윤제, 2006 「奎章閣 所藏『通文館志』의 간행과 판본」, 『규장각』 29, 서울대학교 奎章閣韓國學研究院.
- 김종원, 1965 「『통문관지』의 편찬과 重刊에 대하여: 진천씨의 설에 대한 몇 가지 논의」, 『역사학보』 26, 역사학회.
- 나락연(Lok Yin Law), 2016 「동아시아문화교류관점에서 조선역관의 역할: 역관 김지남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양학』 6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백옥경, 2006 「譯官 김지남의 일본 체험과 일본 인식: 『동사일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安秉禧, 2000 「『通文館志』의 刊行과 그 史料 檢證」, 『규장각』 23, 서울대학교 奎章閣韓國學研究院.
- 梁伍鎭, 2004 「早期 中國語辭典의 種類와 特徵에 대하여」, 『中國學報』 50, 中國學報社.
- 연규동, 1995 「『역어유해』 현존본에 대한 일고찰」, 『국어학』 26, 국어학회.
- 이근호, 2008 「조선후기 인천지역 學人의 분포와 성향」, 『인천학연구』 8,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이상태, 2007 「백두산정계비 설치와 김지남의 역할」, 『역사와실학』 33, 역사와실학회.
- 이순미, 2013 「『譯語類解』 수록 어휘의 출처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총』 59, 중국어문연구회.
- 장인진, 2016 「조선후기 譯官 族譜의 고찰: 『金山李氏世譜』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잡과방목』 (<http://snu.koreaa2z.com/viewer.php?seq=53>)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main.do>)

Abstract

The Compilation of *Yeogeoyuhae* 『譯語類解』 and an Official
Interpreter Kim Jinam 金指南

Kim, Hara

The co-author of *Yeogeoyuhae* 『譯語類解』 is known as three Chinese interpreters of Joseon 朝鮮, Shin Yihaeng, Kim Kyeongjun and Kim Jinam. I reviewed this book and the literature around it and found that Kim Jinam is the most important co-author, perhaps the main author. In 1682, Min Jeongjung, the high officials of Sayeogwon 司譯院, the national interpreter training center, hired two Chinese who had drifted to Joseon to teach young interpreters' conversational skills. At the same time Min instructed the three interpreters to compile a *Yeogeoyuhae*, a Chinese lexicon. At the age of 29, Kim Jinam was a young interpreter who learned Chinese at the time, and was the only young man to compile the book. In the year of the task of *Yeogeoyuhae*, Kim Jinam went on a trip to Japan. He steadily and diligently wrote a diary *Dongsaillok* 『東槎日錄』 while serving as a Chinese interpreter following the government mission's visit to Japan. In this diary, he expressed his insights and expertise as a linguist enough to compile *Yeogeoyuhae*. Interestingly, he met a Japanese who knew Chinese and analyzed his pronunciation, and as a result he deduced that the person who taught the Japanese was from Southern China. Although he did not leave a name in *Yeogeoyuhae* and was not rewarded for many other merits, he worked faithfully in his life as an interpreter belonging to the country, and his sons and grandchildren continued to work in the same profession. His son Kim Kyeongmun 金慶門, helped his father to edit *Tongmunkwanji* 『通文館志』 the manual of Sayeogwon and write a preface. His grandson Kim Hongcheol 金弘喆 compiled the sequel of *Yeogeoyuhae* 『譯語類

解補』 and made it clear that his grandfather had actually compiled the book, a century after its publishing.

Key words : *Yeogeoyuhae*『譯語類解』, the sequel of *Yeogeoyuhae*『譯語類解補』, Kim Jinam金指南, Kim Kyeongmun金慶門, Kim Hongcheol金弘喆, official interpreters譯官